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오늘(13일) 중강당에서 열려 ... 3천62명 학위수여

2003학년도 서울캠퍼스 전기 학위수여식이 오늘 오전11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김현해 신임 이사장,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 류주형 총동창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졸업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학위수여식은 △삼귀의례 △학사보고 △총장 식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전체 졸업식이 끝난 후에는 각 학과별 졸업식을 실시한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93명, 일반대학원 석사 263명, 특수대학원 석사 293명, 학사 2천413명으로 총 3천62명이 학위를 받



위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기 학위수여식 모습.

는다.

이사장 공로상은 김성진(건축학) 군이 수여하며 총장 공로상은 손상민(사회학) 양을 비롯한 10명이 받게 된다. 손정희(선4) 양은 조계

종 총무원장 상을 수여한다.

한편 학사전체 수석은 평점평균 4.31를 받은 김지현(국어국문4) 양이 차지했다. 또한 각 단과대별 수석 졸업자는 △불교대=엄지영(불

교, 4.02) △문과대=진슬기(국어국문, 4.29) △이과대=나오성(화학, 4.28) △법과대=백현(법, 3.94) △사회과학대=송재희(신문방송, 4.15) △경영대=김상술(세무회계학, 4.29) △생명자원과학대=김미주(식품공학, 4.27) △공과대=이우성(전자공학, 4.13) △정보산업대=전희국(컴퓨터공학, 4.29) △사법대=김나영(역사교육, 4.21) △예술대=이은애(조소, 4.18) △야간강좌=김순영(국제통상학, 4.05) 이다.

한편 졸업앨범은 중앙도서관 앞에서 나눠준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등록금 7% 인상 고지

양측 입장차이 좁히지 못해 ... 협의자리 마련해야

200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이 7% 인상돼 고지됐다. 학교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인상요인은 △신규 교원 증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교육환경개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학생회(회장=구자룡·야간영문4)는 지난 달 6일 열린 학교 측과의 등록금 협의 후 학교에서 공개한 (가)·결산 자료의 등록금 인상 요인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올해도 등록금 관련 진통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회 측은 "예·결산안을 살펴보면 적립금을 예산안보다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지난 달 14일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같은 학생회의 행동에 학교 측은 "협의를 먼저 요청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지만 학생회 측은 매년 해왔던 방식만을 고수하려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 달 15일 열리기로 했던 2차 협의가

취소됐다.

이에 지난 11일 총학생회가 학교측에 (가)·결산안의 의문점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학교측 한 관계자는 "학생회가 요구한 17일 오전까지 답변을 할 것 이다"고 했으나 답변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총학생회 역시 '납부거부자 100인 만들기'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재 상황을 살펴볼 때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금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협의 전 7% 인상을 기정사실화



지난달 6일 학교측과 학생회가 등록금 협의를 진행했다.

한 뒤, 이해해 달라는 식의 협의의 준비한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집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려는 학생회 측 태도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재학생 등록금 고지가 이뤄진 지금, '과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등록금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희 기자
bob83@dongguk.edu

동국학원 제21대 이사장 현해스님 선임

만장일치로 선출 ... 2006년 5월까지 임기수행



지난 4일 동국학원 제21대 이사장으로 전 월정사 회주 김현해 스님이 취임했다. 현해 스님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196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지난해 11월 18일 임직한 정대스님의 뒤를 이어 오는 2006년 5월

17일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신임 이사장인 현해 스님은 "이제는 학교가 질적 변화에 주력해야 할 시기"라며 "이를 위해 홍기삼 총장을 지원하고 이사들의 뜻을 모아나갈

다"고 말했다.

현해 스님은 본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월정사 주지, 불교문화진흥조계종 성찬회 이사장, 동국학원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입학식 오는 25일 만해광장에서 개최

신입생 O.T. 25일부터 3일간 진행

2004학년도 서울캠퍼스 입학식이 오는 25일 오전 11시 만해광장에서 열리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같은 날 2시부터 3일간 진행된다.

입학식은 김현해 이사장,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 류주형 총동창회장, 신입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삼귀의례 △총장 입학축하가 선언 △신입생 선서 △이사장 치사 △총무원장·총동창회장 축사 △장학증서 수여 △사홍서원의 순서로 열린다.

한편, 매년 3월 초에 진행되던

입학식이 편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리는 개강 전에 진행된다.

또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첫 날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자랑스러운 동국인 영상물 상영 △소설가 조정래 동문 특별강연 △동아리 축하 공연 △본교 재학생 연예인 축하공연 △응원가 배우기 및 백상응원단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둘째날은 각 단과대별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며, 오전 9시부터 수강신청 예비교육을, 오후 2시부터 학부·과 전공별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은 단과대별 수강신청이 실시되며 오전에는 △불교대 △이과대 △법과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정보산업대 △사법대, 오후에는 △문과대 △사회과학대 △법대 △공과대 △예술대가 진행된다.

야간강좌 오리엔테이션과 수강신청은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린다.

한편 그동안 실시됐던 모의토의 시험은 응시자 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한총련의장 백중호 당선

새 학생운동 조직 건설할 터

1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의장으로 백중호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이 당선됐다.

지난달 31일 연세대(서울)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백중호 후보는 총 252표를 득표해 150여표 차이로 고려대 유지훈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백중호 신임의장은 "12기 한총련은 11기에 채택된 총노선을 이어받아 새 학생운동 조직 건설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기 조국통일위원장에는 단독 출마한 김성일 경기대 총학생회장이 선출됐다.



'꿈의 도전'을 향해 ...

지난해 11월 남극점 등정을 떠났던 박영석(체교 91졸) 동문이 지난 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이번 남극점 등정은 본교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 이뤄진 것으로 이번 성공을 통해 박영석 동문은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김지희 기자
bob83@dongguk.edu

보리소

색즉시공

'얼짱'이라는 말은 얼굴이 제일 잘 난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얼굴이 잘 난 것이 제일이라는 가치관이 개재되어 있는 것 같다.

얼굴과 몸을 불교에서는 색(色)이라 말하는데, 얼짱과 몸짱을 선망하고 선호하는 근래 우리사회의 풍조는 우리가 얼마나 색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존재를 몸과 마음으로 구분하면서 오랜동안 몸은 억압하고, 마음만을 추구해 온 것이 현대 이전의 역사였다. 그것은 동서

를 막론하고 대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조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으나, 현대사회는 몸과 마음 중에서 몸으로 그 중심을 이동해 버렸다.

이제 마음이니 정신이니 하는 것들은 외면되고, 몸의 해방만이 한껏 추구된다.

몸의 욕구에 순응하는 것이 선(善)이라고 말해진다. 그런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얼짱·몸짱 신드롬이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누어 두고 몸

을 억압했던 전통시대나 마음을 외면하고 몸 일반도로 달려가고 있는 현대나 우리 인간 존재의 참모습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을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아름답지 않고서 몸이 아름다울 수 없고, 몸이 건강하지 않고서 마음이 건강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외모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색이 곧 공(空)이다! 얼짱이든 몸짱이든 모두 병들고, 늙고,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나, 곁모습에 속지 말고 변치않는 진면목을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얼짱·몸짱에 속지 않을 수 있을 때 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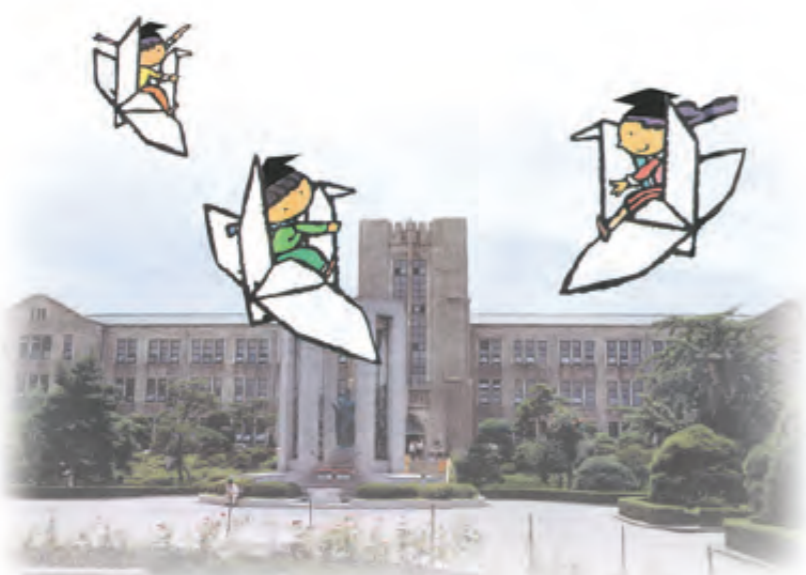
김호성
불교대 인도철학과

본사 신임 주간교수



본사 주간교수 김재석(국어교육학) 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교재석 주간교수는 본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96년 본교에 부임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몸은 비록 떠나지만 당신은 '영원한 동국인'입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8면 졸업문화 살펴보기



졸업은 '모든 졸업생의 축제'이다. 그러나 요즘 대학 졸업식은 축제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에 변질된 졸업문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6면 이색 졸업자 인터뷰

퇴직하는 직원과 졸업하는 생동 이 자매를 만나 봤다.

5면 학위수여자 명단

7면 퇴임교수 인터뷰

생활협동조합 독립법인 출범

오는 3월 1일 공식 출범 ... 복지향상 위해 노력할 계획



지난 5일 상록원에서 생활창립총회가 열렸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이 지난 5일 창립총회를 통해 오는 3월 1일 독립법인 출범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독립법인 출범 지연으로 발생한 사업차질 문제 등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상록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창립총회에 앞서 기존 생활의 대의원총회가 진행돼 회계검토와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실시했다. 또한 복지관 건립기금의 학교 발전기금으로의 용도변경안과 기존 생활의 해산안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생활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학교부지 사정상 복지관 건축이 무리라고 판단돼 이사회 논의를 통해 6억원의 건립기금 전액을 용도변경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창립총회는 1부 창립기념식과 2부 창립총회로 열렸으며 1부 창립기념식은 △개회선언 △설립경과 보고 △이관제 생협 발기인대표 인사말 △홍익상 총장 축사 △이형모 생협 전국연합회 회장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홍 총장은 축사를 통해 "생협이 복지동국 실현을 수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창립총회는 △개회선언 △의안심의 및 승인 △임원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의안심의를 정관 및 규약,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선출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모든 안이 승인됐다. 이를 통해 신입 이사장에는 송일호(경제학) 교수가

선출됐으며 송일호 신입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사에는 김한(영어영문학) 교수와 권용범 총무처장, 이승호(국교4) 부총학생회장 등 총 12명이 선출됐다.

생협은 출자금과 관련해 입학당시 출자금을 납부한 01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는 출자금을 돌려주고 출자금의 재납부를 권유할 계획이다. 또한 02학년 이후의 학생들에게는 광고 등을 통해 출자금 납부의 장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유석 기자 kauri21@dongguk.edu

교지 도난사건 일단락

JMS측, 재인쇄비용 환불기로 합의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교지 '동국' 51집 도난 사건이 교지편 집위원회(편집장=홍선영·행정 2, 이하 교편)와 본교 JMS 소속 학생들이 합의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이번 사건은 교지에 실린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라은성 교수의 '불행과 죽음의 눈, 이 단'이라는 글 중 JMS를 비판한 부분에 불만을 품은 본교의 JMS 관련학생들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24일 교지가 배포된 후 본교 JMS 관련 학생이 교편에 항의 전화를 한 이후 양측이 대자보와 다음호 교지를 통해 라은성 교수의 글에 대한 JMS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만들었다.

그러나 JMS 측이 지난 12월 1일 교내에 남아있던 교지 5년여 권을 가져가면서 사건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본교 JMS 학생측의 연락두절로 교편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는 등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본교 JMS 측이 태도의 변화를 보여 지난 8일 합의 과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JMS 관련학생 박모군(건축4)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며 "교지를 다시 인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편 측은 "법적인 대응도 고려했지만 대화로 해결하게 돼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편은 도난당한 5천여 권의 교지를 재인쇄 할 예정이며 비용은 전액 본교 JMS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재판되는 교지에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본교 JMS 관련학생들의 사과문이 실리며 본교 JMS 측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JMS 교지의 사정은 삭제될 예정이다. 그동안 계속된 해불사건과 지난해에 일어난 탁구부 사건. 그리고 이번 교지 도난 사건에 이르기까지 교내 종교단체들과 관련된 물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학내 3주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현전무대

소탐대실

○...본교의 입학 관련 업무는 따로 따로 행정이라는데.

이유인즉 본교에는 신입생들의 입학과 관련한 업무를 학생선발실과 홍보실 등이 분산해서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학 사회에서 신입생 유치가 중요한 학교별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입학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빠른 시일 내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본산 업무 효과, 분산되는 신입생 지원률(!)"

신 입학훈련소

○...신입생들은 개강 전 크기훈련을 받게 됐다는데.

알아보니 오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입학식, O·T, 세터 등의 바쁜 일정이 겹쳐있어 연이어나기 때문이라고.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인 만큼 학교 측과 사정에 의견을 통해 입장을 조정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동국대 개강 관련,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입장을 견뎌라"

동병상련

○...학복위에서 기획한 사업의 의미가 퇴색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알아보니, 하숙집·원룸에 대한 정보지인 동국택리지 발간이 학복위 내부사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 동국택리지 발간은 학생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됐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동국택리지 발간을 기다리던 지방학생의 말, "동국택리지, 완성되기가 힘들다? 나도 방 구하기 힘들다."

출석부 도입

○...본교 이사회회의 주요 안건들이 빛을 볼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매년 이사회 정족수가 미달돼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지 못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불교 병원 관련 정관개정 등 시급한 안건들이 통과돼야 하는 시기인 만큼 성원 미달로 회의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피해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본교 자아와 명상 수업 3번 결석 fail, 이사회 계속 결석 pass(!)"

등록금 26일까지 납부 학자금 온라인 대출 가능

2004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국민·조흥은행과 농협을 통한 은행 납부 △인터넷 뱅킹 △분할 납부 등이 있으며 분할 납부의 경우 오는 27일까지 등록금의 1/2이상을 납부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잔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농협과 조흥은행에서 온라인 대출이 가능하며 본인 및 보증인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국불교학도서관 창립 기념식 통해 자료 공유

지난 6일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 이하 중도)에서 한국불교학도서관 창립총회가 열렸다.

위덕대, 금강대 등 본교를 비롯한 5개교의 불교대학으로 구성된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이하 도서관 협의회)는 디지털 도서관과 같은 가상공간을 구축해 자료공유를 하는 등 불교학 발전과 포교를 위해 힘 쓸 예정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회칙제정과 임원선출을 했으며 본교 최인숙 관장이 도서관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학복위 동국택리지 발행 하숙·자취정보 실려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원장=박덕수·역교4)가 오는 28일에

'동국택리지'를 발행한다.

올해 처음 발행되는 동국택리지는 기숙사가 없는 본교 지방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계획됐다.

동국택리지는 본교 주변에 위치한 하숙집·고시원·자취집 등 55개의 장소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으며 △사진 △위치 △가격 △내부 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대정대학 교환학생 신청 오는 25일까지 국제교류실

2004학년도 일본 대정대학 교환학생 신청이 오는 25일까지 국제교류실에서 진행된다.

선발인원은 총 4명이며 지원 자격은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또는 학부과정 5학기를 재학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학생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 △재학 및 성적증명서 △여학생력시험(JLPT·JPT) 인증서를 국제교류실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장학생 모집 18일까지 학생복지실

2004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이를 동안 학생복지실에서 진행된다.

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평균평점 2.0이상인 학생은 지원 가능하다.

면접은 각 부서별로 진행하며 근로A는 주당 16시간, 근로B는 주당 8시간 근무하며 각각 월 22만원과 월 11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설악산 등에서 진행

소모임 공연·새내기 뽀내기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총학생회(회장=구자룡·야간영문4) 주최의 2004학년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중앙 새터)가 오는 28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이번 중앙 새터는 △문과대 △법대 △경영대 △생자대 △공과대 △사범대 △예술대 △야간강좌가 참여하며 설악산 등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 날 중앙 새터는 속초 체육관에서 8개 단과대가 참여한 가운데 중앙 동아리 홍보 공연 등이 진행되며, 둘째 날과 마지막 날은 각 단과대별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편 △불교대 △이과대 △사과대 △정산대는 단독으로 새터를 진행한다. 각 단과대별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불교대**
날짜 2월 27일~3월 1일
장소 충남 예산 수덕사(2박 3일), 안면도 근처 콘도(1박 2일)
행사 사찰예절, 대동놀이, 밴드공연
- 문과대**
장소 설악산 금호 리조트
행사 체육대회, 소모임 공연
- 이과대**
장소 계룡산 갑사 유스호스텔
행사 미스 이과대 선발, '라면땅' 공연 크로스컨츄리 게임
- 법과대**
장소 설악산 파인 리조트
행사 무용 배우기, 모의 법정 및 토의 신입생 장기자랑
- 사과대**
장소 충북 괴산군 화양정소수 수련원
행사 소모임(가유, 열음 등) 공연 새내기 장기자랑
- 경영대**
장소 설악산 오색 그린야드 호텔
행사 소모임 공연, 새내기 장기자랑 크로스 컨츄리
- 생자대**
장소 설악산 오색 그린야드 호텔
행사 대동놀이, 새내기 뽀내기 미스 생자대 경연대회
- 공과대**
장소 설악산 오색 그린야드 호텔
행사 과별 장기자랑 소모임(음샘, 한소리) 공연
- 정산대**
장소 수안보 사조마을 유스호스텔
행사 밴드 공연 소모임(동무, 한소리 등) 공연
- 사범대**
장소 설악산 금호 리조트
행사 새내기 뽀내기 소모임(풍물패, 율동패 등) 공연
- 예술대**
장소 설악산 오색 그린야드 호텔
행사 새내기 뽀내기 길따라 떠나는 공동체 놀이
- 야간강좌**
장소 설악산 오색 그린야드 호텔
행사 초청 강연회 풍물패·율동패·노래패 합동 공연



'간절함 마음'을 담아 ...

지난 5일 부터 동국학원 부속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필경도 앞에서 재단부담정보 철

회를 비라는 릴레이 108배'를 실시했다. 교사들은 이번 정보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비민주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최유석 기자 kauri21@dongguk.edu

- 영어패스제 토익시험 실시 오는 18일까지 접수**
언어연구교육원(원장=봉일원·독일학)이 영어패스제 토익시험 접수를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시험은 오는 19일 10시 언어연구교육원 실습실에서 진행되며 응시료는 5천원이다.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2005년도 2월 졸업생부터 영어패스제가 적용되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신임교원 수계식·수련회 오는 23일부터 3일간 열려**
2004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수계식 및 수련회가 오는 23일부터 3일간 열린다. 이번 수계식에는 본교 및 재단 산하 중·고등학교 교원들이 참가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각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불교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간학이념 강의 △108참회 △참선 △초빙강사 특강 △신규교원 임용장수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발전기금 확충 방안 마련

자동차 보험 제휴 등 시행

대의협력처(처장=유덕기·생명 자원산업유통학과)가 본교 발전기금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곧 시행될 자동차보험 제휴를 통한 발전기금 확충방안은 본교 구성원을 포함한 동문, 불교신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금 중 7%가 학교 발전 기금으로 적립된다.

이 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존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는 한달여 전에 대의협력처에 가입

청을 하면 된다.

또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주위 업소들을 소개해 주고 매달 일정 금액을 학교 발전 기금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동국대학교 후원의 집'도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안재봉 발전기금 팀장은 "최근 진행된 두가지 방안이 학교 발전기금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새터사고 추모제 열려

중앙도서관·학생회관 등 분향소 설치

지난 2000년 새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새터 사고 4주기 추모제'가 오는 17일 추모미 앞에서 열린다. 이번 추모제는 오전에 정각원에서 법회를 진행하며 오후에는 사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헌화, 분

양 등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피해자들을 위한 분향소가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 단과대 로비 앞에 마련됐으며 오는 17일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h3>총장장학 개선 내용</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내 학생자치기구 간부에게 수여되는 총장장학의 부정 수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총장장학 운용 방법을 개선하여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개선된 제도 시행 후에도 부정 수혜 사례가 재발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될 것이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p>■ 총장 장학 운용 방법 개선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장장학생 추천 기한 설정 : 학기의 3분의 1까지로 엄격히 제한함(위 기일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총장장학생 명단 공개 가. 공개방법 : 동대신문에 게재 나. 공개시점 : 학기의 1/3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발간호 <p>다. 공개범위 : 총학생회(정·부회장 및 집행부), 총학생회(정·부회장 및 집행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및 집행부), 총대의원회(의장 및 집행부), 동아리연합회(정·부회장 및 집행부), 교지편집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각 단과대학생회(정·부회장 및 집행부), 각 학과(전공)학생회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예외사항 : 학과(전공)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교내·외 타 장학의 수혜로 인해 총장 장학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학기 동일 학과(전공)에 승계 하되, 승계자는 총장 장학 수혜 기준을 충족한 자 중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하는 학생으로 함(단, 장학수혜 기준점칙 또는 기준성적 미달로 인한 경우는 소별됨). 	<h3>근로장학생 선발계획 안내</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자격 가. 1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8학기 이수예정자 제외) 나. 주당 8시간 또는 16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다. 취득학점 17학점,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단, 졸업이수학점이 120학점인 대학은 15학점 이상) 라. 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자 2.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 매월 동국가족통장으로 지급 가. 근로A(주당 16시간 근무자): 월 220,000원, 나. 근로B(주당 8시간 근무자): 월 110,000원 3. 근무부서별 업무내용 및 선발인원 : 추후게시 4. 선발방법 및 기준 가. 선발방법 : 해당부서별로 면접을 통하여 선발 나. 선발기준 : 가계곤란정도, 근무부서만족도, 학업성적 등을 고려 5. 선발일정 가. 공 고 : 2004. 2. 9(월) ~ 2004. 2. 18(수), 각 대학 및 인터넷 게시판 나. 접수기간 : 2004. 2. 17(화) ~ 2004. 2. 18(수) 다. 면접 일 : 2004. 2. 20(금), 10:00 ~ 16:00, 해당부서별로 개별 실시 (부서별 면접장소는 추후게시 예정) 라. 합격자발표 : 2004. 2. 24(화), 해당부서별로 합격자에 대해 개별 통보함 마. 합격자소집 : 2004. 2. 27(금) 오후 3시, 각 해당부서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본교 학생복지실본관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부서별 업무내용 및 면접장소는 추후게시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2600-30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2>학 생 처</h2>	<h2>학 생 처</h2>

요즘 청년실업, 특히 대졸자들을 포함한 고학력자들의 실업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또한 그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는 그동안 무리한 대학증원과 과도한 학력인플레이로 인한 노동의 초과공급현상이다. 기업이 신규공채보다는 경력자를 위주로 수시채용 형태를 선호하거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 채용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신규졸업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1980년대의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처한 교육기회의 확대에서 차후에 배출되는 노동력의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교육의 기능도 달라졌어야 함에도 교육제도는 과거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청년 고학력자의 인적자본구성이 노동시장의 요구와 다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인력의 구성비만 변화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것이 현재 고학력 청년실업률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대책마련, 그러나

이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주요한 국가적 인적자본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대책



논단 송일호 경제학과 교수

청년실업 해결 대학교육의 역할 제고부터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총리산하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고,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각 부처간 과장되고 중복된 정책 내용으로 말미암아 비현실적이라는 후평을 받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정책들이 충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부분의 정책은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함에도 경쟁적으로 새로운 정책 발표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 하다.

고학력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단기적 처방은 다양하다. 대학생의 창업촉진을 위한 '벤처인력 인큐베이터 사업', 신규 대졸자의 눈높이를 낮추어 중소기업으로 유도해 경력을 쌓게하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도' '정부지원 인턴제' 'IT분야 직업훈련' 등이 그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실업대책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여 실업률을 낮추는데는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고학력 청년실업대책은 보다 장

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사회의 구성을 원만하게 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고 대학졸업장이 취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용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회 각주체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인 사회불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과 연계 강화해야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공급자는 나름대로 교육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특성상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대학교육이라는 정규교육 자체에서 찾기보다는 정규교육이 그 자체의 특성과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선에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과 기업간 연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 관한 인적자원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며 한편으로 대안교육 시스템을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학력 청년실업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사설

신임 이사장에게 바란다

지난달 27일, 동국학원 제21대 이사장으로 현해 스님이 선임됐다. 이번 선임은 뜻하지 않은 서정대 전 이사장의 입직에 따른 것이지만 신임 이사장 역할의 막중한 말을 나눠 같다.

특히 임기내에 불교병원 개원과 건학 100주년 맞이 등 굵직굵직한 사안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재단측의 지원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교 불교학과 동문이자 풍부한 교육·행정경험이 밑바탕되어 있는 현해 스님이 적임자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 선출과정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이사장 선출과정에 불만을 품고 퇴장함에 따라 남은 사안을 의결하지 못했던 상황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즉, 본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이사들의 내부결속 부족문제가 자칫 학교측의 업무처리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신임 이사장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동국학원 이사들의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이다. 아니, 화합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병원정관개정안과 행정조직개편안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재단의 재정지원 확충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실질적인 재단전입금이 거의없는 실정에서 등록금의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이는 결국 학부모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재단 수익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번 신임 이사장은 본교의 도약과 쇄퇴의 갈림길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선임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 이미 졸업식 치사를 통해 '화합과 안정의 기초 위에서 법인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만큼 학교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구도서관 리모델링 착공 지연

공사업체 선정 늦어져... 다음해 3월에야 이용 가능할 듯

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개강 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여 입주가 한 학기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이는 리모델링 공사 업체선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학교측이 당초 계획한 '지난해 12월 착공, 오는 8월 입주' 보다 최소 3개월 이상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어도 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도 오는 11월은 되어야 완공가능하다. 그러나 학기중에 단과대와 연구실 등이 입주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다음해 3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도서관 리모델링 조감도.

이에 따라 리모델링 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였던 공간부족문제가 한 학기 이상 지속되게 됐다. 때문에 2개 단과대와 교수 연구실, 열람실 등이 입주해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 교수와 학생들은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 교수회장은 "3년째 2인 1실을 사용하는 교수가 있을 정도로 연구실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지연돼 답답할 정도"라고 말했다. 학생회 역시 강의실과 열람석부족문제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공사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설계도면을 확정된 학교측은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 10월과 11월 두 차례 몇몇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했으나 예산에 맞는 업체를 찾지 못해 모두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

가 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학교측은 몇몇 업체에 견적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당초 예산과 차이가 난다고 판단해 이를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섭 구매팀 과장은 "안정적인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공능력과 부채비율 등 여러 조사를 하고, 한 번 입찰하는 과정에 한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리모델링 추산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예산을 책정해 업체와의 입찰가격 차이를 줄이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입주가 한 학기 지연돼 발생하는 '공간부족문제 지속'이라는 비가시적인 비용을 감안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예산책정이 됐어야만 했다.

현재 학교측은 조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입찰을 준비할 계획이다. 더 이상 열악한 교육여건이 '유지'되지 않도록 업체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kwertewq@dongguk.edu

구도서관 리모델링 일정

- ▲ 2003년 1월 현 중앙도서관 개관
- ▲ 3월 = 1학기 중 공사시작 발표
- ▲ 5월 = 하계방학 때 공사시작 발표
- ▲ 9월 = 리모델링 설계도면 확정 (당초 2월말 확정 예정)
- ▲ 10월 = 공개설명회 1차 입찰 → 유찰
- ▲ 11월 = 2차 입찰 → 유찰
- ▲ 12월 = 일부 업체에 견적 의뢰
- ▲ 2004년 1월 예산 조정안 이사회 승인
- ▲ 현재 3차 입찰 준비중 → 이르면 오는 11월 개관

동국만평

장미애 substory@hanmail.net

2004, 조류 수난시대! RED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고재석
부주장: 구본철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한보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2003학년도 전기 개별(대학원, 대학, 학과) 학위수여식 장소 안내

▷ 자세한 문의는 각 학과사무실로

대학(원)명	학 과	학위수여 장소	학부모 대기실	개별학위 수여식 시간	대학(원)명	학 위수여 장소	학부모 대기실	개별학위 수여식 시간		
불교대학	불교학과	정각원		12시 ~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동국관 M304	좌동	12 : 20 ~	
	인도철학과	정각원		12시 ~		사회학과	동국관 M306	"	"	
	선학과	정각원		12시 ~		신문방송학과	동국관 L308	"	"	
문과대학	사학과	명진관 202	명진관 103	11 : 30 ~	경영대학	국제학과	동국관 M305	"	"	
	철학과	명진관 106	"	12시 ~		북한학과	동국관 M407	"	12 : 00 ~	
	윤리문화학과	명진관 208	"	11 : 30 ~		국제통상학과	동국관 L202		11 : 50 ~	
	국어국문학과	명진관 207	"	11 : 30 ~		경영학과	동국관 L301	L205	12 : 00 ~	
	영어영문학과	명진관 204	"	12 : 20 ~		정보관리학과	동국관 L401	"	11 : 00 ~	
	독일학과	명진관 102	"	12시 ~		광고학과	동국관 L204	"	12 : 00 ~	
	일어일문학과	명진관 105	"	11시 ~ 11 : 30		회계학과	동국관 L201	"	11 : 30 ~	
이과대학	중어중문학과	명진관 101	"	11 : 30 ~	생명지원 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해화관 G215	G201	11 : 00 ~	
	문예창작학과	명진관 207	"	11시 ~		신림자원학과	해화관 G209	G202	"	
	수학과	명진관 304	명진관 306	12 : 30 ~		생명지원 산업유통학과	해화관 G207	G207	"	
	회학과	명진관 308	"	12 : 20 ~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원흥관 E606	전자공학과세미나실(E606)	12 : 00 ~
통계학과	명진관 303	"	12 : 20 ~	전기공학과	원흥관 E617		전기공학과세미나실(E219)	"		
물리학과	명진관 305	"	12 : 20 ~	토목환경공학과	원흥관 E517		토목공학과세미나실(E517)	12 : 20 ~		
반도체공학과	명진관 302	"	12 : 30 ~	건축공학과	원흥관 E417		건축공학과세미나실(E417)	11 : 30 ~		
법과대학	법학과	동국관 M302	동국관 M406	11 : 30 ~	생명·화학공학과		원흥관 E217	화학공학과세미나실(E221)	12 : 00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동국관 M303	좌동	12 : 00 ~	기계공학과		정보문화관 P402	정보문화관 P402	12 : 00 ~	
	경제학과	동국관 L407	"	"	컴퓨터공학과		정보문화관 P403	정보문화관 P403	11 : 00 ~	
	행정학과	동국관 M307	"	"	정보산업대학	멀티미디어학과	정보문화관 P404	정보문화관 P404	11 : 00 ~	
정보산업대학	산업공학과	원흥관 F101		11 : 30 ~		정보통신공학과	정보문화관 P401	정보문화관 P401	12 : 30 ~	
	국어교육과	학림관 406	학림관 405	12 : 00 ~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림관 305		13 : 00 ~
	교육학과	학림관 201		12 : 00 ~			지리교육과	학림관 307	3층 제도실	12 : 30 ~
수학교육과	학림관 306		12 : 00 ~	수학교육과			학림관 306		12 : 00 ~	
가정교육과	학림관 407	학림관 408	11 : 30 ~	체육교육과			체육관		12 : 00 ~	
영어영문학과	명진관 A204	명진관 204	12 : 20 ~	아간강좌			영어영문학과	명진관 A204	명진관 204	12 : 20 ~
경제학과	동국관 L407	동국관 L407	12 : 20 ~		국제통상학과		동국관 M405	"	12 : 30 ~	
경영학과	동국관 L301	동국관 L301	12 : 00 ~		정보관리학과		동국관 L401	동국관 L401	11 : 00 ~	
정보통신학과	정보문화관 P401	주 12 : 30 ~	아 13 : 30 ~		회계학과	회계학연구소(동국관)	"	중서단 교부		
미술학과	K309	K308	12 : 30 ~		정보통신학과	정보문화관 P401	주 12 : 30 ~	아 13 : 30 ~		
연극학과	소극장	소극장	13 : 00 ~		미술학과	K309	K308	12 : 30 ~		
영화영상학과	중도 A/V실	중도 A/V실	12 : 00 ~		예술대학	연극학과	소극장	소극장	13 : 00 ~	
문화예술대학원	덕암세미나실			영화영상학과		중도 A/V실	중도 A/V실	12 : 00 ~		
국제정보대학원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		12월 오후	문화예술학과		명진관 A207	명진관 A103	11 : 00 ~		

치사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심사

자비의 정신 몸소 실천하길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과 학부모 여러분!
어느덧 새 봄의 서기(瑞氣)가 남산의 교정에 가득한 오늘 본인은 동국학원을 대표하여 영예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학발전을 위해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오신 홍기삼 총장님을 위시해 오늘 이 학위수여가 있기까지 교육과 연구활동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교수 여러분과 학사행정에 헌신해 오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국학원은 불교의 도제·십심·자비정신을 건학이념으로 동국대학교를 개교한 이래, 98년을 맞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역사와 함께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굳건하게 국가의 수많은 동량들을 길러내 민족의 명문사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졸업으로 그 빛나는 역사의 한 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혼란으로 얼룩져가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동국'은 여러분과 같은 굳건한 의지와 주체적 자아를 확립한 인재들을 배출하

여 여정에 항해의 돛을 올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간곡히 자비행의 실천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부디 명명(銘命)할 것을 당부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본인은 동국학원의 이사장으로서 화합과 안정의 기초위에서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내실을 기하는 데 법인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아울러 총장을 도와 대학의 경영체제를 혁신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앞으로 2년후 개교 100주년을 즈음해서는 국내 정상급의 대학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이 동국을 졸업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모교, '고향 중의 고향'으로 더욱 빛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졸업생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불교의 화쟁사상으로 녹여내면서 투철한 모교애를 간직하고 20만 동국인 선배들이 이룩한 사회적 업적과 전통을 계승하여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 갈 큰 역군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여러분의 앞길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길 축원하는 바입니다.

김 현 해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정신적가치 소중히 여기는 동국인

자랑스런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목역의 광장에서 용맹정진 노력한 결과로, 오늘 영예로운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래의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 있는 문을 나서서 눈부시게 비상할 시점에 서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담당인 인격의 주인이 되어 모교를 빛내주시길 바라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는 동시에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융합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학은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조화하고 협동하는 미덕을 키우고,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끝없이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정신적 가치, 곧 물질적 가치와 가혹한 경쟁의 논리 대신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경쟁사외 속에서도 함께 더불어 사는 상생과 공존의 논리를 건학이념으로 삼은 동국대학교의 졸업생임을 유념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선도해야 합니다.

해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에게 명여롭고 자랑스런 모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혼신의 열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백년의 역사가 남긴 특정한 뿌리와 풍부한 자양을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을 확실한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강도 높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든 교정을 떠납니다. 이제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모교는 여러분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로이 싹트는 동국사람의 마음으로 20만 동문선배들과 함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현해 큰스님을 비롯한 동국학원 임원 여러분, 정임 총장님, 그리고 유주형 총동창회장님과 많은 내외귀빈들이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고 미래를 축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힘찬 전진과 위대한 성취, 그리고 빛나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 기 삼
동국대학교 총장

박사학위수여자 (93명)

철학 (4명)

▲박서연=도신장(道身章)의 화엄사상(華嚴思想) 연구 ▲석길갑=원효의 보법화엄사상(普法華嚴思想) 연구 ▲김종영=한국 불교무용(佛敎舞踊)의 사상적 의미와 문화 예술적 가치 연구 ▲유병래=노자(老子)의 위도자(爲道者)에 관한 연구

문학 (12명)

▲강덕화=디지털 서사텍스트의 생성과 소통에 관한 연구 ▲박준석=국어 어미 {-더-}의 사전 기원에 대한 연구 ▲한영순=제임스 조이스의 패러디 연구 ▲김순영=Cohesion and Coherence Shift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장희홍=조선시대 환관(宦官) 연구 ▲이기병=조선시대 사파제(相繼制)의 운영실태 연구 ▲이영숙=조선 후기 괴물정(掛佛精) 연구 ▲최은영=고려시대 '팔관산대잡곡(八關山臺雜劇)' 연구 ▲황혜진=1970년대 유신체제의 한국영화 연구 ▲김병재=한국 대중영화에 관한 정치경제학 연구 -김대중 정부기간 시나리오의 변형양상을 중심으로- ▲문규원=1990년대 한국 코미디 연구 -희극장면(comic scene)과 아이치 재현을 중심으로- ▲서국숙=1960년대 후반기 한국 변장코미디영화의 대중성 연구 -변장모티프를 통한 내러티브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학 (2명)

▲박복석=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박병진=한국 중등사학(中等私學)의 발전추이(發展推移) 분석

법학 (1명)

▲최희지=기업회생절차(企業更生節次)에 관한 연구 -통합도산법안(統合倒産法案)을 중심으로-

정치학 (6명)

▲손영일=현대사회의 정보화 과정과 한국의 정보화 발전정상에 관한 연구 ▲김민수=인권의 보편성과 실천성에 관한 연구 ▲이영재=허버마스의 소용돌이 권력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의 이론적 재건을 중심으로- ▲장정호=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최은진=국제법 이론에 관한 연구 ▲신광민=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행정학 (2명)

▲김영호=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산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영신=노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학 (4명)

▲최소성=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박준성=소방(消防)공무원의 전문화방안에 관

경제학 (1명)

▲이영래=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4-H회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경영학 (7명)

▲김도학=영상산업(映像産業) 프로젝트 조직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연구(實證研究): 프로듀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경서=배대성, 자율성, 능력의 다국적 기업 사회사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혜은=브랜드 커뮤니티의 형성과정 및 소비행태에 관한 실증분석 -프로젝트 시프터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준현=국제 전시회 참가기업의 고객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이흥재=한국의 환율변동보험율(換率變動保險率) 결정에 관한 연구 ▲권의중=중소기업의 경쟁우위와 인바운드 로지스틱스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정대희=연결납세제도(連結納稅制度)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 (12명)

▲오형택=A study on defects related with Fe and Mn in III-V compound semiconductor ▲이상욱=고휘도 교류구동 후파 무기 EL 소자의 특성과 신뢰성에 대한 연구 ▲이인자=회로류 Gd계 X선 증감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이준우=열분해법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극 제조 및 Thiourea 흐름 주입 분석을 위한 적분 펄스 전기화학 검출법 ▲이흥래 =Syntheses and Spectroscopic Characterization of Azido and Nitrido Complexes ▲

김삼욱=암 영상용 방사성 요오드 표지 하이페리신 및 예모던 유도체의 합성과 생물학적 연구 ▲국제정=비관측 공변량을 고려한 순서형 처리할당 연구 ▲김대환=그래프 모형을 이용한 가파도 평균들 간의 다중비교에 관한 연구 ▲신은순=마이크로어레이 자료에 대한 결측값 보정 연구 ▲안만길=Expression profile of cytokines and apoptosis mediating molecules in mouse subcapsular kidney allograft: Diagnostic value for allograft rejection ▲김석기=골포 운동 활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응용 변인별(變因別)에 관한 분석 ▲황정혜=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남성의 부성 경험 연구

농학 (1명)

▲권영업=사료용(飼料用) 맥류(麥類)의 생장해석(生長解析), 사료가치분석(飼料價値分析) 및 최적(最適) 수확시기(收穫時期)에 관한 연구

임학 (1명)

▲김정=플루트 프로파일의 골관절의 재료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공학 (13명)

▲이정훈=자율이동로봇을 위한 개선된 PID 제어 방식과 영상인식을 이용한 미로탐색시스템 ▲임재석=Image and Video Watermarking Algorithms: Estimation-based Copyright Protection with Low Density Parity Check Codes and Invertible Semigratic Authentication ▲송미영=복합 지형에서의 캐러터 및 영상 동작의 통합적 생성 ▲유우규=신뢰도메인과 여행 안내 서비스를 이용한 이동 에이전트 보안 관리 ▲명원식=웹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컨텐트 인기도를 이용한 부하분산 정

책 ▲나승일=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적용한 자원공유 시스템 ▲김진우=SAN 기반 대용량 스토리지 시스템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황보석=복합(複合) 인장구조물(弓張構造物)의 구조적 거동(挙動) 특성(特性)과 안정화 이행과정(移行過程) 해석 ▲김수영=건축형태(建築形態)를 제한하는 지표면기온(地表面基溫)에 관한 연구 ▲김성용=무근(無筋)콘크리트에 매입된 익스팬션 앵크의 내력평가(耐力評價) ▲박환표=건설정보(建設情報) 분류체계(分類體系) 활용도 측정모델 ▲안준수=입부 프로세스 중심의 정보기술 보안 위험관리 모형 개발 ▲서병을=마케팅생상성을 고려한 시계열(時系列)의 계절조정(季節調整)과 수요예측

한의학 (23명)

▲신동훈=회림의 Nitric Oxide 유리를 통한 평활근세포에서의 Apoptosis 유도 ▲박동원=배양한 흰쥐 대내세포의 저산소증 모델에서 우황청심원이 유전자 표현에 미치는 영향 ▲신광식=시호(芫花)의 BV-2 미세포 및 뇌하마 신경세포 보호 효능에 대한 연구 ▲박은경=동무(東武)이재미(李薺美)의 인간간에 관한 연구 ▲오준환=남송시기(南宋時期)의 의학(醫學)에 관한 연구 ▲이탁=과화(槐花) 약침액(藥鍼液)의 암예방 활성에 관한 연구 ▲박원영=이지환(二至丸)의 항산화 작용에 의한 세포보호 효과 ▲김종정=고지방 식이 흰쥐의 비만에 삼릉(三稜)이 미치는 영향 ▲이부태=Effects of Drynariae Rhizoma on the proliferation of human bone cells and the immunomodulatory activity ▲권혁남=귀비탕(歸脾湯)이 구속 Stress 유발 백서(白鼠)에 미치는 영향 ▲이승희=보심귀비탕(補心歸脾湯) 투여가 Stress 유발 Mouse의 Hypothalamus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배효상=Effects of Scutellaria barbata D. Don on EGF and aromatase

P450 in uterine leiomyoma cells ▲김의근 =Euonymus alatus (Thunb.) Sieb inhibits cell growth and induces apoptosis in human leiomyoma smooth muscle cells ▲권차남=Euonymus alatus (Thunb.) Sieb induces apoptosis via mitochondrial pathway as prooxidant in human leiomyoma smooth muscle cells ▲곽동걸=난간전(暖肝煎)의 뇌내(腦內) monoamine 조절을 통한 항우울효과 ▲신화석=사역산(四逆散)의 항우울효과(抗憂鬱效果) 및 뇌내(腦內) monoamine에 미치는 영향 ▲이수경=A Korean herbal medicine, Panax notoginseng, prevents liver fibrosis and hepatic microvascular dysfunction in rats ▲안종찬=The effect of Zedoariae rhizoma on bronchial inflammation and allergic asthma in mice ▲김근찬=강활속단탕(羌活續斷湯)이 Adjuvant 유발(誘發) 관절염(關節炎) 동물(動物) model에 미치는 영향 ▲이원창=A water extract of Curcuma Radix L. (Zingiberaceae) rescues PC12 cell death caused by Oxidative Stress ▲김갑수=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 및 가감반(加減方)의 비만억제효과(肥滿抑制效果)에 관한 연구 ▲조세양=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이 비만유발 흰쥐의 체중감소, 혈청지질 및 UCP1 발현에 미치는 영향 ▲윤보현=양격산화탕(陽隔散火湯)이 Atopy 피부염(皮膚炎)에 미치는 영향

의학 (4명)

▲이주성=담배 재배농에서 담배잎농부병의 유병률 변화와 역학적 특성 ▲정유선=무우가 Helicobacter pylori에 의한 위염증증에 미치는 영향 ▲배준태=심이직장 내용물의 역류로 유발한 흰쥐의 식도병변에서 Cyclooxygenase-2, Endogenous Pyrogen receptors 및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의 발현 ▲김홍환=2002년 경주시에서 유행한 급성출혈성결막염에 관한 역학조사

석사학위수여자 (556명)

일반대학원 (263명)

문학석사

▲이지현='입보제행론(入普提行論)'의 수행법 연구 -자비관(慈悲觀)과 인욕(忍辱) 수행을 중심으로- ▲김정은='조당집(祖堂集)' 찬술(撰述)에 관한 연구 -동국승(東國僧) 전기(傳記)를 중심으로- ▲노인경='법계관론(法界觀論)'에 보이는 화엄공관(華嚴空觀) 연구 ▲김영희=초의선사(曹伊禪師)의 다도관(茶道觀) 연구 ▲유경=백파(白坡)의 '수선결사문(修禪結社文)' 연구 ▲박공순=요가 호흡 수련 (Pranayama, 조식(調息))의 의의 -하타 요가를 중심으로- ▲이태훈=kundalini 요가(Kundalini Yoga)에 대한 시스템 이론적 이해 ▲정선경=왕사성(王舍城)(Rajagaha)를 중심으로 본 아나타의 위상(位相)에 관한 연구 ▲박문성=Pasupati (수주파(獸主派))의 실천 원리 연구 ▲이영석=연(緣)(Pratyaya)의 상의상관성(相相關係) 연구 ▲김익조=집미사와 통용되는 동사 연구 ▲박연희=김수영 시론 연구 -'운몽의 시학'을 중심으로- ▲최지현=근대소설에 나타난 학교 -이태준, 김남진, 심훈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김대중=The Sound and the Fury에서의 지각 이미지 연구 ▲오정아=아시아계 미국인의 전형화와 극복 -이정래 작품을 중심으로- ▲장혜진=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동기유발에 관한 연구 ▲김종희=상전추성(上田秋成)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상(人物像) 연구 -공목상(宮木像)을 중심으로- ▲이

삼성=서포(西浦) 김진중(金鎭重)의 시문학(詩文學) 연구 ▲윤재순='산중일기(山中日記)'로 본 조선 후기 불교상황 ▲진나라=조선시대 '사장(叢長)' 연구 -불교 신앙활동을 중심으로- ▲유리=조선 후기 의방관(醫方官) 연구 ▲문은희=갈로왕도(甘露王圖) 도상(圖像)의 형성 문제와 16.17세기 갈로왕도 연구 -수륙제(水陸齋) 의례집(儀軌集)과 관련하여- ▲신은경=경전사상총서(敬天寺十層石像)의 종합적 연구 ▲정희선=조선 후기 화사(畫師) 임헌(任獻)에 대한 연구 ▲김정선=조선 후기 불전(佛殿)의 꽃살문 연구 -17·18세기 꽃살문 연구 중심으로- ▲정순우=조선 전기 불상양식의 연구 -중국 명대 불상과의 양식비교를 중심으로- ▲임재안=경주 불국사 다보탑 연구 ▲박일용=조선 후기 불화(佛畵)에 보이는 밀교계(密敎系) 도상(圖像) 연구 ▲이상승=통일신라말(9世紀) 석조연각불좌상(石造圓脚佛坐像)에 대한 연구 ▲이승용=율곡(栗谷)의 사회사상에 관한 연구 ▲정행연='대승기원론(大乘起信論)'의 일심사상(一心思想)에 관한 연구 ▲신승철=틀리츠/가타리의 육방론과 신체론에 대한 고찰 -'천개의 고원' 6장 '기과 없는 신체'를 만드는 법을 중심으로- ▲이신영='우리읍내(Our Town)'의 연출적 접근방법 연구 -일상성의 강화를 중심으로- ▲장한나=서울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연구 -작품성향을 중심으로- ▲이형돈=체첵(Anton Chekhov) 연기의 절충성 연구 ▲김진경=das KONDOM 기획서 △서경혜=멜로드라마의 장르 혼합현상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초반 영화를 중심으로- ▲주완건=Mobile를 통한

영화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향 -휴대폰 사용자들의 만족도 및 관심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석사
▲정동하=통합명성이 고등학생의 상태불안, 우울,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여고 1년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석사
▲김진=남북한 경제질서에 관한 연구 -통일헌법상 경제질서를 중심으로- ▲이승주=부당이득배상(不當利得賠償)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민우=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입증부담(立證負擔)의 경감방안(輕減方案) 연구 ▲박종욱=컴퓨터범죄의 실제법(實體法)·절차법(程序法)상의 쟁점에 관한 연구 ▲이호진=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중심으로- ▲임재현=프로스포츠 선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이수진=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연구 ▲박영길=불심검문(不審檢問)에 관한 연구 ▲김용범=평등권에 관한 연구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배건이=유전자정보보호(遺傳子情報保護)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정치학석사
▲임세준=APFC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조현우=인터넷 공론장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허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연관하여- ▲박소영='복조 선민주주의민주화'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탁용달=3대혁명소운동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정윤=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문화 재생산 -노동자의 순응, 갈등, 저항 행위를 중심으로- ▲김진하=지역복지관의 복합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 실태와 개선방안
경찰학석사
▲이희정=여성수용자(女性收容者)와 자녀와의 관

계선에 관한 연구 ▲이강훈=민간경비(民間警備員)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이봉환=경찰조사 권독립과 통제에 관한 연구 ▲남재성=재방방지(再犯防止)를 위한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박원배=자동차 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차홍진=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연구 ▲조민영=아내 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학석사
▲황지연=사이버공공체의 정체성과 집합행동 -디시인사이드, 예세탈클럽, 뷰티안마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희=영화제작자의 불확실성과 자선이용 전략 -한국 영화산업의 제작사를 중심으로- ▲양원철=비정규직 노동자의 집합행동에 관한 연구
경제학석사
▲박혜진=한국의 재벌과 비재벌 기업간의 수익성 비교분석 ▲김문성=R&D지출, R&D 파급효과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김택수=CAPM 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자산별 수익률 분석 -1987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안종환=쌀 시장 개방화에 따른 쌀 전업농의 규모별 경영모형 설정 ▲이승용=전과적 경제성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TCA 방법론을 중심으로-
경영학석사
▲이용각=M&A로 인한 기업가치의 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오광식=기술적, 상징적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수입 자동차 3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소정=백화점 쇼핑경험하는 감정적 요인이 쇼핑만족도와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혜영=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 대형 승용차를 중심으로- ▲정경호=내

부차거래의 초과수익률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종욱=EVA 정보모형의 기업부실 예측력에 관한 실증연구 ▲박이철=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박두진=회계이익의 감소 및 손실 회피를 위한 경영자의 회계이익 조정 관행(慣行)=재무제표(財務報表)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송신호=회계이익공시에 대한 정보 효과 -KOSPI200과 KOSDAQ50을 중심으로- ▲정광수=경제적부가치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준환=Big Bath 현상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병선=상장기업의 법인세부담 공평성과 그 결정요인 ▲이정기=이법인세회계(移住法人稅會計)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윤국재=대학 가산점과 학사수 수강권유에 관한 연구 -D 대학 가산점과를 중심으로- ▲송은정=Ultra-Structure Theory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변경 용이성에 관한 연구 -U 기업의 매출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안철=호텔 이용객에 있어서 관계해체이 고개 충동도에 미치는 영향 ▲김원형=호텔산업에서의 브랜드 전환행동도에 관한 연구
이학석사
▲송복성=MBE법으로 성장된 Au 합성 p-type Hg1-xCdxTe 박막의 특성 연구 ▲김지영=Lithium Iron Phosphate 시료의 소결 온도에 따른 자기적 특성 연구 ▲김윤정=MBE법의 In-Situ Annealing에 의한 p-Hg0.7Cd0.3Te 특성에 관한 연구 ▲허강=디지털 X-ray 시스템을 위한 분할형 Gd₂O₃:Sb₂O₃ 형광체 플레이트의 제작 및 발광특성 연구 ▲정광재=MBE법에 의한 GaMnN 박막 성장 및 특성 연구 ▲윤성중=Sr-xCa_{1-x}O 이중접합 쌍극성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홍진=A Study of Defect in AlxGa1-xN by DLTS ▲김태희=철 이온을 포함한

리튬이온전지의 충/방전에 따른 Mossbauer 효과 ▲박승수=Mossbauer 분광법에 의한 Ni_{0.82}Co_{0.2}Fe_{0.2}O₄의 물성 연구 ▲신용범=Studies on removal and transport of mixed electrolyte solutions across ion-exchange membrane by electro dialysis ▲최희운=F-18이 표지된 Choline 유도체의 합성에 관한 연구 ▲김정석=정준변환을 이용한 시간 의존 조화 진동자의 해 ▲김한성=광반사 화합물의 이성질체 분리 및 흡수 스펙트럼 측정(모세관 전기 영동법) ▲추서수=다양한 방법으로 제조한 이산화탄소 전극기화학적 특성 연구 ▲김찬영=폴리분사 및 열분사에 의해 제조된 TiO₂ 광촉매 박막의 특성에 관한 연구 ▲추정은=생분해성 폴리에스터의 합성 및 물성에 관한 연구 ▲장은진=Study for Organic Electrochromism -Reductive Homocoupling Reaction of Aromatic Dihalides Utilizing Mg Electrodes- ▲조성수=코발트 화합물의 광촉매성에 대한 α-치환체 효과에 관한 연구 ▲박정준=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호가정보 공개 확대 전후의 허수승 효과 분석 ▲김유진=EM 알고리즘과 PL 알고리즘을 이용한 단일염기연이온의 일대칭형 비율 추정 비교 ▲박경숙=관측연구에서 처리가 세 집단 이상인 경우의 Propensity Score 매칭 방법에 관한 연구 ▲김미경=데이터마이닝의 분류기법으로서 Support Vector Machine에 관한 비교 분석 ▲김유지=DNA 마이크로어레이 자료의 표준화 ▲김재형=로지스틱 관측분석 및 KMV모형을 이용한 기업부도예측에 관한 연구 ▲이대은=데이터마이닝 분류기법으로서의 베이저안 법에 관한 연구 ▲최수진=통합 P-value에서 절삭법 방법과 Fisher 방법의 비교 연구 ▲송승원=부분 관측된 자료하에서 정규 상태 공인모형 추정을 위한 파타를 필터링에 관한 연구 ▲김희경=데이터마이닝의 분류기법인 PRM

▶ 4면에서 이어짐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박경만=데이터마이닝 분류기법의 비교 -MART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김인기=전이학습을 PHONE에서 걸출값 보정에 관한 연구 △이한수=Home Monitoring Network Alliance를 위한 10-6 100MSPS CMOS DAC의 설계 △류지호=고속 A/D 변환자를 위한 Track-and-Hold 회로의 연구 △오범석=디지털/아날로그 튜닝입력에 의한 2.4GHz 전압성=리미터/아날로그 튜닝입력에 의한 2.4GHz ISM 밴드용 고주파 CMOS 전력증폭기의 설계 △채용두=2.4GHz ISM 대역용 발크를 이용한 CMOS 하향주파수 변환기의 설계와 분석 △민정희=고주파 반송성 스펙터를 이용한 ZnMnO 박막의 형성과 특성 △최승훈=항대사물질 6-aminocotranidine가 ICR 생식의 배아 발달과정 중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영선=신경독성물질인 6-aminocotranidine가 뇌 신경원종양세포의 세포사에 미치는 영향 △이경과=Improvement of Regeneration and Transformation of Korean Barley (Hordeum vulgare L.) cultivars by Particle bombardment with OSMADS1 gene △강영권=야생동물의 생태이동률(生態移動率) 이용과 실효성에 관한 연구 △김혁=발달과정 생화학적 표시자를 이용한 병신자의 약예방 효과 △조장환=한국산 강종거미과(거미강:거미목)의 분류학적 연구 △정철운=형상강(山江) 수계주변(水系周邊) 설치류(齧齧類)의 서식지 선호도에 관한 연구 △정호근=Lactoferrin Up-Regulates B-cell Lymphoma-3 in the K562 Erythroleukemia cells

농학박사
△이석기=Breeding brittle super sweet corn using tropical germplasm

공학박사
△김수결=A Lossless Audio Coding based on Transform Method and Prediction Method △우승근=MPEG-2 비트열에서 MPEG-7 디스크립터 생성 및 응용 △김만중=수직 자기기울에서 잡음 예측기를 가지는 PR TURBO SYSTEMS △류유선=Analysis of PEAQ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with Filterbank-based Model △이윤성=불변의 모멘트를 이용한 객체 매칭 △조양석=H.264/AVC의 고속 부호화에 대한 연구 △김경만=5GHz 대역의 RF CMOS 주파수 분배기에 관한 연구 △변준우=EFMPlus 코드의 디코딩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RSP 디코딩 방법 및 구현 △홍찬선=다수의 Blu-ray Disc 기록 채널에서 동작하는 PRML 시퀀스 구현 △김태호=5GHz 대역 주파수 합성기를 위한 RF CMOS VCO 연구 △변영용=저전력, 저잡음, 고속 CMOS LVDS I/O에 관한 연구 △이화희=MPEG-7 영상 디스크립터를 이용한 비디오 검색 시스템 △김현우=SCGe HDTV를 이용한 5.8 GHz 대역 MIXER의 설계 및 제작 △염원영=V-band Monolithic Quadruple Sub-harmonic Mixers의 설계 및 제작 △문용수=기하학적 공극에 의한 비파괴 위 터마킹 알고리즘 △김상복=케던형 인피던스 공진기를 이용한 새로운 구조의 소형화된 튜블렉서 설계 △김영철=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강인 PID 제어 방식 △김형철=폐기물을 위한 고효율 알고리즘 △유형석=사이트의 인기도를 고려한 도큐먼트 교체 정책 △수태우=XML을 이용한 웹문서 인출 △황호성=웹 서버 클러스터의 부하분산을 위한 서버 선택 알고리즘 △수재민=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FEC 성능 향상 기법 △이은준=무선환경에서 분산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시간 동기화 기법 △이현석=대용량 파일 시스템을 위한 선형 해시 디렉토리 설계 △홍동철=패리티와 ds-SMDA를 이용한 디스크 이중 고장 복구 △김진우=모바일 P2P 응용 프로토콜 개발에 관한 연구 △김미희=우선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TCP 성능 분석 △이희정=보안성과 유용성을 고려한 RTT기반의 패스워드 인종 방안 △문찬일=감각이 도입된 이합 집산이 가능한 군중 지능 물레신 △남담준=가성비를 위한 어셈블리 언어의 설계 △김현우=다중모뎀에서 시스템에서 자원 효율을 고려한 혼합형 고장 감내 실시간 스케줄링 △최성운=RF 신경망을 이용한 로터 및 펌프 모터의 분산 제어 △한경태=이차원 환류 다이오드를 제거한 ZVZCS Interleaving Two-Transistor Forward 컨버터에 관한 연구 △최형석=다수의 배터리에 대해 동격개념을 도입한 배전구조 상정에 관한 연구 △김영호=통과공학에서 흡수인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설동재=회프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PSC 역터형변과 직사각형변의 거동비교 △김경섭=웹기반 오피스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수재민=생상성을 고려한 건설공사 공기 지연 분석방법 △김상중=확률적 공기시간상정에 의한 공정계획 합리화 방안 △최형철=공기청정 장치의 열역학적 해석 및 대체용 개발을 통한 공정 최적 기술 개발 △정은정=UV조합에 의한 이성질체 분리막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정욱=수위화 제에 변화에 따른 Montmorillonite(MMT) 나노복합체의 특성 연구 △공현숙=AOT micromulsion을 이용한 CdS 나노입자 및 박막 제조에 관한 연구 △김재중=Polyester Resin의 점착력과 표면 특성에 관한 연구 △조인순=가짜미신의 동결건조성 동결건조와 선반온도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 △김기현=Characterization of Aroma Extracts Isolated from Medicinal Plants △박정기=K-Caragenan/locust bean gum 복합 필름의 물성과 압축성형 효과 △한진경=연공통계학적 정보와 연관성규칙을 이용한 협동적 추천시스템의 개발 -백화점 데이터를 중심으로- △박민우=Web상에서 사용 가능한 STEP 에디터의 개발 △황동호=제품의 수명을 고려한 다기능 통합생산 분배 계획 △홍기창=계측적 구조를 가진 거래 데이터의 발생시점 중첩을 허용한 연관성 규칙 탐색 △김성우=공격을 이용한 다양한 밀도 분포를 가지는 혼합물의 효율적인 분류 방법에 관한 연구 △김승록=카메라 모션컨트롤러를 위한 GUI 환경의 개발 △김동현=무선통신 시스템을 위한 결정지향 채널추정에 관한 연구 △박은영=IPv6/IPv4 통합망에서 다중 TCP 기반의 IPv4-to-IPv6 듀얼 선택 전략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최승현=ATM 망에서 그를 연결을 위한 인제치를 가진 우선순위 기반 공평성 향상 Leaky Bucket 알고리즘 △이미희=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위한 MIMO 기술에 관한 연구 △최원일=Pointer switch : A high Speed Routing Fabric △김대성=신뢰적 멀티태스킹 프로토콜을 포함된 피드백 사용을 통한 향상된 확장성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김도형=TMVC : ATM기반 MPLS에서 효율

abscess patients △김기호=종합효소연쇄반응법을 이용한 요증 결핵균 핵산 검사 △이은주=대장 이중 조영술 정제치: 경구 인산나트륨과 구연산 마그네슘의 비교 △김현지=바이로즈 동정을 통한 2002년 도 경주지역에서 유행한 소아의 무균성 뇌막염에 대한 임상적 연구 △김대운=Lacrimal trephine을 이용한 △박준보=3차원 유원외초법을 이용한 지하수 흐름측정-코크리얼 개발 △임주은=앵커로 연결된 콘크리트-강재 구조물의 비선형 해석 △김성보=베이지안 기법을 활용한 지반특성 해석 △김원준=초연악기반에서 진공압에 따른 수평배수재의 압밀특성 △김수민=지표수-지하수 연계모형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 △전형득=안전한 웹 서비스를 위한 XML 보안 메커니즘 설계 및 구현

영상정보통신대학원 (14명)

멀티미디어디자인사
△김동영=Compositing Animation(3D Object Animation)과 실사의 Compositing을 통한 영상 연구 △김재욱=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인터넷에티비 e-book 제작) △윤기용=The Kinky ball(3D Animation 제작과정)에 관한 연구 △이원정=T(H)REE(Computer 3D Character Animation 제작에 관(關)한 연구(研究)) △임미정=A Mouse(3D Character Animation 제작) △전다영=Unidentified Creature(이를 없은 괴물) (3D Animation 제작과정)에 관한 연구 △조영아=번지점프를 하라(3D Animation 제작)

공학박사
△강영민=MPLS 기반의 L2/L3 VPN 기술에 관한 연구 △구태일=QoS 보장을 위한 QM 기반 에이전트 관리 시스템 모델링 △김명준=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김용기=트래픽모니터링을 통한 네트워크관리 △백성민=차세대방 기판 DEN을 위한 정책기반 관리 시스템 연구 △이종대=IEEE 802.11 무선 LAN 보안 확장에 관한 연구 △조영수=Centralized Cookie Server(SSO) 분석과 보안 향상을 위한 연구

불교대학원 (10명)

문학박사
△지세택(홍재)=불교생태학의 이론적 배경과 실천 연구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불교의 종교적 과제- △김무찬=한국 상여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김형남(경환)=치매환자에 대한 간병인의 의욕조사 연구 △이하나=장례식장 전문화를 위한 인적자원 연구 -서울시 소재 병원 장례식장 중심으로- △주진곤(지은)=불교와 타교도의 상징적 의식절차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학박사

△강희화(사희복자) 사회복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고형득(종오)=종교공동체의 사회복지적 기능에 관한 연구 -경동(淨土)과 다일(多-)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정호진=보육사업 인종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윤순옥=여성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 불자를 중심으로- △조은영=재가기능재노에 대한 재활서비스 필요성 및 이용유구에 관한 연구 -종합복지관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중심으로-

행정대학원 (37명)

행정학박사
△박우규(도훈)=장애인고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성영=일반직 공무원의 성과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양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성준=한국군의 정지개입에 관한 연구 -5.16과 12.12를 중심으로- △전관식=공공공사(公共工事)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 △오세찬=미국의 MD정약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정근=한국 방위산업의 계약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종현=한(韓),미(美) 동맹 관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오경석=미국의 軍 구 조변화에 관한 연구 -군 구조의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김우주=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우진=무인기경비시스템의 오경보(誤警報)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규삼=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通告處分)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기서=군법외의 발생상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김정영=국외도사법원 송환실적 분석 및 송환대책에 관한 연구 △서동수=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오광필=한국의 대(對) 테러 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은정=경찰의 비형소년 훈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진선=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에 관한 연구 △정병진=비형소년 선도에 대한 경찰과 지역 사회 역할에 관한 연구 △최혜선=과학교사에게 있어서 거짓말탐지기 활용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정수(희홍)=군장병(軍將兵) 자살의 원인과 불교적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이승욱=Polygraph 검사의 확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신유환=한국 경찰의 이미지 제고(提擡) 방안에 관한 연구 △송인관=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윤지은=공용기관 총기범죄(鎗器犯罪)에 대한 교육정책 비의 대응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이종용=형선소性質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성=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김정영=육사(陸軍) 특수예정 임종의 지원방안 연구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김현양=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박순자=보육시설종류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오민수=군인 보훈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유승혜=의료복지자시설의 평결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영=보육시설의 재정지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재 구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김정민=아동학대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정준자=정신치료(精神治療)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조규학=차상위(次上位) 계층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과 기도에 관한 연구 -구로구 지역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최진규=북한국의 대남 실업자에 관한 연구 △김태규=북한 사회변동과 군부 변화 전망

경영대학원 (58명)

경영학박사

△신승범=검도관의 경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최규철=A은행의 국제B2B 전자결제 시스템에 관한 연구 -IDENTRUS 인종을 중심으로- △오광진=육군 다면평가제도(多面評價制度)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차현근=직업전문인 직무만족에 관한 실험적 연구와 전략적 대안 -육군 영관급 장교를 중심으로- △김영성= '히프코 리더십'을 통한 부대관리(部隊管理) 향상방안 △김민준=초급관급의 지휘통솔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용=군수지원체제(軍需支援體制)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병익=임무별 지휘 적용에 따른 군 초급관부의 리더십 향상에 관한 연구 △윤찬진=BSC 성과시스템 사례연구 △한상민=신세대 장병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 △김중목=군(軍) 조직의 지식경영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영=우리나라 예산집영 조직의 재구성 필요성에 대한 사례 연구 △이정환=한미 육군 근무사적평정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김경민=재대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 유커리시장을 중심으로 △유광수=수산물 유통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춘호=KB 국민은행의 우대고객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선=D성고객의 고객만족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광영=공기업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삼근=사이버 게임 스포츠성이 소비자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성형=일반의약품 구매자의 정보태도와 구매의도형성에 관한 연구 -과공과 Information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희숙=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과 고객 신뢰와의 관계연구 -남성 컷트 전문점을 중심으로- △박현경=백화점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민=남성전문미용실(블루클럽)의 특색시장개척에 대한 사례 연구 △이은영=신세계카드시스템의 FMC 운영사례 -안락유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박정영=인터넷 취업사이트 시장지배전략 사례 연구 △최기찬=한사(韓) 유통 경로 재설계를 통한 효과성 사례 △김정민=패션 저널리 마케팅 전략사례 -일우이(일우) 프랜차이즈 유통을 중심으로- △김상우=가정용 에어컨 선택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종배=상표결정요인 중 가격변화가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경희=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비즈니스 성공사례 연구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 발전방향 중심으로- △신정현=A사(社)의 신규투자사업 추진사례에 대한 연구 △이효준=(주)백화점의 경영분석 사례연구 △김상철=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희=기업합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은주=건설업에 대한 부가가치의 연구 △조유래=지방자치기업의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김정규=국방관리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명환=개인 대출의 사절정을 위한 knowledge Creator 사례에 관한 연구 △구지홍=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CRM 도입 방안 연구 -백화점 문화센터의 CRM 효과를 중심으로- △김대용=가정용 확보를 위한 재해부구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S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기=ERP주요 중 M&A에 있어서 개발시스템 도입 성공에 관한 사례 연구 △박준호=CALS의 적용과 군수(軍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민병철=군 정보시스템의 이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철=생명보험회사의 IT 프로젝트 지연 원인과 대응 방안 △김동원(廣鎔)이 소재한 토지의 취득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관례 및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윤규주=부동산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문준기=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재주지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경태=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희준=노후복지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서원호=다문화가족의 건강서비스 △서형석=부동산거래소 유형 및 예방방 △김갑=부동산산전정책에 관한 연구 -투기억제정책을 중심으로- △권영철=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조세정책과 그에 대한 연구 △김정영=대전광역시 오경보(誤警報)에 대한 연구 △박종호=지역축제 관광 이벤트의 육외광고 매체별 인지도에 관한 연구 △장진영=TM(Tele marketer)의 이직률 증가가 고객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 해결 방안 -생명보험 Outbound TM을 중심으로-

교육대학원 (82명)

교육학박사
△박현우=정학사의 정책지도에 대한 교사 인식 △서성수=서울시의 문화교육 선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권대식=산림정교과 교육과정연구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성순=직무분석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시에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김지현=교과명 명칭 변경을 통한 유아 정서발달 연구 △이희복=교과 4대 명칭 프로젝트 활동 및 효과 연구 △김정은=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반편견 프로그램 효과 분석 △김미옥=동화에 의한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 △김정호=유아교육자 인식하는 유아교육기관 운영 실태 분석 △김여래=문화재를 활용한 유아 감상활동에 대한 교사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이은정=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 교육 현황 분석 △진재은=일반어린이집에서의 장애유아 통합보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해시 어린이집 교사들을 중심으로- △박선진=성(聖)애(愛)이(李)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류은상=해강(海剛) 최한기(崔漢綺)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김진아=홈에 있어서 물질적 실태 인식에 대한 연구 △김기도=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이영우=정소주의 성의식과 학업성취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김지영=필렌드르프에 대한 재평가 -외교/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진태영=홍대영(洪大英)의 자연 과학 사상 -우주론을 중심으로- △김지훈=영화와 예술의 사례와 방법 연구 -고등학교 세계사 1차 2차 세계대전 부분을 중심으로- △김세

영=명대(明代) 사변(士變) 연구 -사변(士變)과 동립(東林)·복사(復社)의 사상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정희숙=5,4운동기 여성운동의 전개와 의의 △황갑승=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단어와 '문법' 단원에 대한 분석 △김은주=매체 활용을 통한 읽기 능력 신장 방안 △성상도=이효석 후기소설 연구 -모더니즘 특성을 중심으로- △홍성순=백선에 소설 연구 △류준주=Jigsaw 학습 모형을 활용한 토의·토론 수업 -듣기·말하기의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을 위하여- △김은주=16세기 자료 '장수경언해(長壽經譯解)' 연구 △김미향=문체론의 국어 교육적 수용 방안과 실제 -국어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박정숙='오발탄'의 라이트 모티프에 대한 고찰 △조석준=김유신 정승의 서사 유형적 고찰 △정지혜=드라마 매체에 나타난 대화의 국어 교육적 분석 -텍스트분석을 중심으로- △이희화=소설의 인물 지도 △한상민=신세대 장병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 △김중목=군(軍) 조직의 지식경영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영=우리나라 예산집영 조직의 재구성 필요성에 대한 사례 연구 △이정환=한미 육군 근무사적평정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김경민=재대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 유커리시장을 중심으로 △유광수=수산물 유통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춘호=KB 국민은행의 우대고객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선=D성고객의 고객만족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광영=공기업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삼근=사이버 게임 스포츠성이 소비자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성형=일반의약품 구매자의 정보태도와 구매의도형성에 관한 연구 -과공과 Information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희숙=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과 고객 신뢰와의 관계연구 -남성 컷트 전문점을 중심으로- △박현경=백화점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민=남성전문미용실(블루클럽)의 특색시장개척에 대한 사례 연구 △이은영=신세계카드시스템의 FMC 운영사례 -안락유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박정영=인터넷 취업사이트 시장지배전략 사례 연구 △최기찬=한사(韓) 유통 경로 재설계를 통한 효과성 사례 △김정민=패션 저널리 마케팅 전략사례 -일우이(일우) 프랜차이즈 유통을 중심으로- △김상우=가정용 에어컨 선택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종배=상표결정요인 중 가격변화가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경희=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비즈니스 성공사례 연구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 발전방향 중심으로- △신정현=A사(社)의 신규투자사업 추진사례에 대한 연구 △이효준=(주)백화점의 경영분석 사례연구 △김상철=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희=기업합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은주=건설업에 대한 부가가치의 연구 △조유래=지방자치기업의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김정규=국방관리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명환=개인 대출의 사절정을 위한 knowledge Creator 사례에 관한 연구 △구지홍=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CRM 도입 방안 연구 -백화점 문화센터의 CRM 효과를 중심으로- △김대용=가정용 확보를 위한 재해부구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S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기=ERP주요 중 M&A에 있어서 개발시스템 도입 성공에 관한 사례 연구 △박준호=CALS의 적용과 군수(軍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민병철=군 정보시스템의 이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철=생명보험회사의 IT 프로젝트 지연 원인과 대응 방안 △김동원(廣鎔)이 소재한 토지의 취득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관례 및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윤규주=부동산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문준기=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재주지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경태=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희준=노후복지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서원호=다문화가족의 건강서비스 △서형석=부동산거래소 유형 및 예방방 △김갑=부동산산전정책에 관한 연구 -투기억제정책을 중심으로- △권영철=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조세정책과 그에 대한 연구 △김정영=대전광역시 오경보(誤警報)에 대한 연구 △박종호=지역축제 관광 이벤트의 육외광고 매체별 인지도에 관한 연구 △장진영=TM(Tele marketer)의 이직률 증가가 고객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 해결 방안 -생명보험 Outbound TM을 중심으로-

언론정보대학원 (15명)

언론학박사

△양희화=소주제작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연구 -독립제작사 프로듀서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송명철=인터넷 방송의 수용자 이용동기와 행태에 관한 연구 △심희철=수용자의 스키마(SCHEME)와 미디어교육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재이=가정 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기초형성의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남철환=유아와 방송사의 PR활동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민=보도사건의 초상권침해와 알권리에 관한 연구 -법원의 관련분석을 중심으로- △권오성=시사교과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요소와 관련 연구 -추적060를 중심으로- △김은우=인터넷 신문의 이용동기와 만족도에 따른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학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경영학박사

△이재산=사이버범죄의 실태 분석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 관리시스템 중심으로- △박해영=지식기반사회에서의 e-Learning 현황 및 발전 방향 △홍철준=군(軍) C4I개발을 적용한 국가 재해방재센터 모형에 관한 연구 △김정훈=애프터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박정숙=△김재식=인터넷 서점의 출판물 유통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노승권=출판잡지산업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IS0 9001 도입을 중심으로- △최복순=방화인력 프로젝트의 경영기법 도입 연구 -6기교과를 통한 기획 프로젝트 매뉴얼화(化) 시론-

산업기술환경대학원 (31명)

공학박사

△이병훈=Verilog HDL을 이용한 CD 및 DVD 인코더용 PLL 설계 및 구현 △이원우=전기공사 및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 △강연용=해의플랜트 건설공사 수직성 설계 효과 방안 △김미선=우리나라 하천보전을 위한 운동방향을 위한 연구 △강나경=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한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김찬희=거주집 동바리 공사(工事)의 붕괴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김형태=철근 콘크리트공사 품질관리를 통한 균열발생 최소화 방안 △박재삼=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한 SCT구조시스템 공법에 관한 연구 △신희권=국내 내진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 연구 △김정호=연합된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구축에 관한 연구 △이석정=건물 리모델링의 외부 마감 개선 방안 -외단열 공법을 중심으로- △김정호=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유/무선 동기화 방법 △김강수=PMMA를 이용한 웹 환경의 UIS 응용 컴퓨터 모델링 △김영춘=군수자원관리 정보체계 통합을 위한 환경정보에 관한 연구 △김정모=IS0 9000 구현에 관련된 연구 △김희철= 설계 및 구현 △김준경=모바일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연구 △박윤경=웹기반 교육 사이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에 대한 연구 △오경은=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압축기법에 관한 연구 △유영준=.NET 프레임워크에서 웹사이트를 위한 .NET COM+객체 개발 △이영진=XML을 기반으로한 초고속 학원 사이트 통합시스템 설계 및 구축 △오진호=MicroSO 운영체제의 해킹에 대한 대책 방안과 보안기법 △홍선희=모션 캡처를 통한 가상공간의 3D 아바타 시스템 구현 △홍희경=패킹 및 침입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홍삼찬=재택교육 플랫폼에 관한 연구 △김효숙=변성전분이나 첨가된 식량의 텍스처에 관한 연구 △조승욱=Hydrocolloids를 첨가한 빵의 텍스처와 노화에 대한 연구 △한형철=상피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에 대한 단세포공정학의 생산과 특성분석 △성형철=키토산의 농축산 분야의 응용

문화예술대학원 (35명)

문학박사

△김은영=김수현 드라마 분석 - '정춘의 땀'을 중심으로- △서희화=고정희 연극 연구 △서선영=시: 명당의 52권 △서희영=야비여행, 스키드 마크 △서혜순=텔레비전 드라마 텍스처에 나타난 내러티브와 그시화의 의미구조 △유익서=남송소전(南松小傳), 천구역, 천구역 △이은경=오경호 소설의 이원성 연구 -타사문학 △김정호=오경호 소설의 이원성 연구 -사상체질 분석을 중심으로- △최형철=신경림 후기 시의 서정성 연구 △류재영= 수원 연극사 연구 △문석복= '벨리트'의 분석과 연출의 실제 △김보선=한국 영화제작에 관한 연구 △김효숙=변성전분이 첨가된 식량의 텍스처에 관한 연구 △조승욱=Hydrocolloids를 첨가한 빵의 텍스처와 노화에 대한 연구 △한형철=상피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에 대한 단세포공정학의 생산과 특성분석 △성형철=키토산의 농축산 분야의 응용

예술학박사

△김진희=연기자의 제스처(Gesture)에 관한 연구 △김민정=연극음악을 통해 나타난 아동의 정서 함양에 관한연구 △손기봉=Woyczek의 무대 형상에 관한 연구 보고 -부산 신원극단 17회 정기공연 작품을 중심으로- △임찬호='백베드'의 '백드프' 인물형상과 연구 -공연 실태를 중심으로- △김정영=트란 안 홍 영화 스타일 연구:작가주의 중심으로

미술학박사

△박기래=북한지역 전통건축물 단층조형양식에 관한 연구 △박정호=조선 후기 도식인물화 연구 △이현선=17세기 서양화의 연구 △최문경=일백사원 신증행화(189*346) △황유성=고려벽중의 불상·보살상 출현에 대한 연구 -조식배경 및 양식을 중심으로-

음악학박사

△김귀업=통영 승전문의 음악연구(삼현육각을 중심으로) △김보성=불교음악의 대금음악 발표회 △김행미=김보성을 주제로 한 대금 음악 발표회 △박경현=태평소 사나위 선율분석연구 △박정화=경기 12잡가 중 유산가 비교 연구 -박준태, 임정단의 유산가를 중심으로- △이강근=법파와 선소리 산타령 △이은진=줄춤의 음악적 구조 연구 △김영희=호남 좌도농악의 연희연구 -임실 필봉 농악과 진안 증평 농악의 비교를 중심으로-

예술경영학박사

△김정영=구조 분석을 통한 뮤지컬 산업의 발전 전략 연구

국제정보대학원 (11명)

공학박사

△김동욱=효과적인 유해 트래픽 제어를 통한 네트워크 생존성 향상 방안 연구 △김정희=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대응 복구에 관한 연구 △김영준=계량형 금융전산환경의 시뮬러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 △서병호=스퀘어메일의 현황과 대안 연구 △공재순=공격특성 변화에 따른 해킹피해 시스템의 분석 사례 및 대응에 관한 연구 △김희복=유비쿼터스 패러디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김영준=생체인식 보안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김의형=무선랜 안전성 강화방안 연구 △김홍석=Mobile IPv6 환경에서의 Security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식=지문 인식 시스템에 관한 연구 -지문인식기를 통한 및 정책과제를 중심- △이은택=정보시스템의 위험분석 모델 비교연구

이색졸업자 인터뷰

우리들도 이제 졸업해요



총무처 직원 안영덕(59)씨.

‘졸업’이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교과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이나 기술 따위에 통달했다는 뜻이다. 본교에서 32년 동안 근무하고 어느덧 정년퇴직을 앞둔 총무처 직원 안영덕 씨. 그에게는 두 번째 의미의 졸업이 어울린다.

“실감이 나지 않네. 32년 동안 근무를 해서 그런지 아직도 새벽이면 출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학교 밖에서 3개월 동안의 사회 적응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 세월동안 몸에 밴 습관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스물 여덟, 한창 나이 때 근무를 시작해 평생 ‘동약의 지킴이’가 되었던 안 씨는 정문 수위실에서 근무할 때를 자주 기억에 떠올린다. “군사정권이었던 당시 학생들이 민

“고생속에도 보람찼던 지난 30여년”

주화 운동을 할 때면 최루탄 가스 속에서 어지럽혀진 교정을 정리하느라 고생했지” 또 혼자서 24시간을 근무했던 때도 많아 화장실에 가지조차 힘들었다지만 그의 표정은 무척 밝다.

“고생스러웠어도 사람들 사이에 정이 있어 즐거웠네” 수고한다면서 쪽지와 선물을 남기는 교수들도 있었고, 묘하게도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같이 자리를 옮긴 미술학과 학생들과 인연이 깊었다는 그는 요즘 학생들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음을 아쉬워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종강파티나 송별파티를 할 때면 나를 자주 불렀지” 덕분에 원래 못하는 술까지 배우게됐다며 웃음을 짓는다.

퇴직 후에도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또 다른 일을 찾을 것이라는 안영덕 씨. 학교를 위해 큰 업적이나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에게 32년 동안 그 누구보다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당신을 존경한다 말하고 싶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쌍동이 지매 지하나, 지두나 양.

지난날 어느 강의실, 어떤 여학생이 수업에 늦자 허둥지둥 앞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리고 잠시 후 강의실 안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화들짝 놀란다. 잠시 전의 그 여학생이 또 다시 앞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함께 다닐 때면 주위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똑같은 외모와 목소리를 가진 이들. 이번에 본교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하는 일란성 쌍동이 지매 지하나 양과 지두나 양이다.

아버지를 따라 건너간 멕시코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창시절을 보낸 그들은 서로 적성이 비슷해 그동안 같은 학교에 다녔고 지난 4년 전에는 같은 학과에까지 진학하게 됐다.

“쌍동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많은 예피소드가 있었죠”

교수님이 누가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친구, 심지어 어머니 조

“똑같은 얼굴, 학점관리 비법이에요”

차도 서로 눈감고 있을 때면 헛갈려 한다고 한다. 하지만 똑같은 얼굴이 때로는 학점관리 비법이 되기도 했다. 몸이 아플 때 대리출석을 해도 들릴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나보다. 얼굴과 목소리는 서로 같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것이다.

“언니는 꼼꼼한 성격인 반면 저는 덩방대는 편이죠” 이렇듯 정반대인 성격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해 싸우지 않은 날이 손에 꼽힐 정도라는 쌍동이 지매. 싸울 때는 믿지만 어려서부터 항상 붙어 있어 그런지 함께 있을 때 더 편하고 일을 잘 한다는 그들이다.

졸업 후 지하나 양은 무역회사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지두나 양은 대학원 진학을 할 예정이다.

“이제는 서로 떨어져 속이 시원해요”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래도 아쉬움이 묻어나온다. 지금까지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은 나누며 지란 그들에게 앞으로 변치 않는 우애가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하자

따뜻한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나자 날씨가 맑고, 얼었던 땅들도 녹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동약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세상은, 계절 변화하듯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선거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어느 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느냐, 어느 사람이 금궤자를 다느냐 등 말이다.

동약인들 중에도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이보다 조금 더 관심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얼마전 한 시민단체는 투표를 하지 않고, 해외 여행 등으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여하자고 이야기한 적 있다. 투표하지 않는 모습은 단지 부유층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거’의 거부감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투표율이 저조하여 학생자치 기구

들의 선거무산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학가에도 캠퍼스 내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 신입생 친구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기 위한 선거연령 하향운동 등 사회의 문제들에 참여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들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에 동약인들도 참여가 없는 비난이 아니라, 참여하며 비판할 수 있도록 부재자 투표소 설치 등 많은 활동을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정자 투표일에 모교지나 여행 등을 떠나는 일부 사례를 우리는 목격하곤 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나 외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멋진 동국인이 되자.

이흥범(공과대 기계4)

현재의 자신에게 충실하자

대학생활 4년 동안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값지게 생각하고 있다.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을 사용하지만 모두 유용하게 쓰지는 않는다. 남는 시간은 지축해 둘 수도 없고 그냥 버려질 뿐이다.

대학에서 전공공부를 하며 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보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졸업 전 취업해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적응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학교생활에서 익숙해진 시간관리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틀을 한번쯤은 거부해 보자. 누구나 경험하는 시기에 자신 또한 그 속에 동화되지 말고 스스로의 모습을 찾아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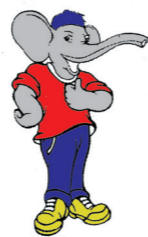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 한층 나이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이를 먹을 수록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 인생의 중심에 자신을 세워보라. 그러면 주위가 넓게 보일 것이다. 청년실업을 한탄하며 주위를 보지 말고 중심에 자신이 있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면 분명 그에 대한 길이 보일 것이다.

대학의 가장 큰 매력은 자유분방함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어디에서든 자신의 소중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사회로 진입하기 힘들더라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규칙은 사회에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하루에 충실해 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현재이다.”

박준기(경영대 회계4)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성희형! 상민이형! 졸업 축하드려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 44, 45기
△진주야, 선희야~ 행정학과 합격한 것 축하해.
△박영석 동문 남극점 등정! 축하축하~ ^^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선희야~ 아르바이트 구한 거 축하해. 열심히 해서 한 톨 내라.

열심히 하시다

△청년실업의 벽을 넘기 위해! 졸업생들 모두 파이팅!

△중규야! 청춘사업 열심히 해. - JS

수고하셨습니다

△용철원 교수님 정년 축하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재수강 듣고 싶었는데... - 윤경

그리고...

△필수야, 군대 잘 갔다와.
△애 등록금이 7%나 인상 된거죠?
△인도철학과 기다려라! 다음 학기에 내가 간다.
△전진! 군대 잘 땡겨와 - 영·회 모임
△슬기형 우리 회동 언제해요? - 섹시
△우리 학원 진짜 빠지지 말자. - 돼지
△태우형! 양주 사들고 갈게.
△동대신문사 V동 이전 축하드려요. - DUBS



취업이 전부인가
- 장미애 - substory@hanmail.net



선배, 졸업인데 취업은 하셨어요?
졸업생이 다 취업한다는 편견을 버려. 그건 졸업생을 두 번 죽이는...



♥하는 선배님 졸업 축하드려요~ 화팅!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퇴임교수 인터뷰

하늘을 곱게 물들이는 석양은 반평생 한 길을 걸어온 당신입니다

동악을 떠나도 진솔한 술자리에서 윤리교육 계속할 것

젊은이들로 가득한 대학이 어느 술집, 그 가운데 이마에 주름진 한 '어르신'이 학생들과 거침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교수라는 체면도 잠시 잊은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실뿐만 아니라 술자리 등 어디서든 진솔하게 강의하기로 이른산 송재운(윤리문화학) 교수. 하지만 이제는 그가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을 듯 하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배우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한 것 같아 반성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가르침을 위해 노력해 온 송 교수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큼 정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아쉬움을 토로한다. 어려서부터 슬퍼했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불교에 심취했다는 송 교수는 대학입학 후 동양철학사상으로 관심의 폭을 넓혔고, 이 중 특히 '이성보다 마음이 진리'라고 말하는 중국의 양명학을 전공했다. 이후 그는 급격한 산업화로 물질적 가치가 팽배해져 동양윤리사상을



송재운 교수
(문과대 윤리문화학)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인간의 마음'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윤리선생'의 길을 택했다. 어느덧 선생의 길에 접어들어도 30년이 지난 지금 그에게는 사람사이의 정이 가

장 소중한 자산이다. "제자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명절에 인사하러 찾아올 때의 기쁨과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요." 이렇듯 오랜기간 제자들과 정을 함께 나누어 온 송 교수지만 퇴임을 앞둔 그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그늘이 묻어나온다. 의학과 경영학 등 실용학문에 학생들이 몰려 윤리문화학을 발전시킬 후학들을 양성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제자들도 윤리문화학이라는 학문을 직업이나 실생활에 연계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자리를 너무 늦게 물러온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가르침보다 자신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송 교수. 비록 교단에서는 떠나지만 제자들을 진정 자식처럼 대하는 그의 모습이 진솔한 술자리에서 계속되길 기대한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끊임없는 제자 사랑의 마음 학생 위한 연구로 이어갈 터

20여년 교수 생활의 마무리를 눈앞에 둔 그의 연구실 풍경은 과연 어떨까. 흔히 그동안 연구를 위해 한 장, 한 장 넘겼을 각종 서적들을 정리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새 깨끗이 치워져 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퇴임교수의 연구실이 있다.

자신의 연구 서적 대부분을 학교에 기부하고 책장 가득 학생들을 위한 마음을 담아두고 떠나는 용철원(영어영문학)교수의 연구실이 바로 그 곳이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영어에 재능이 있다는 선생님의 칭찬을 계기로 처음 영문학에 발을 디딘 용 교수. 그는 지난 85년 본교 영문학 교수로 부임한 후 지금까지 영문학의 외길을 걸어왔다고 한다.

용철원 교수는 스승의 칭찬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몸소 깨달은 만큼 재직 중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려 노력했다.



용철원 교수
(문과대 영어영문학)

"나의 칭찬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네"라며 미소 짓는 그의 모습에서 따뜻한 제자 사랑이 전해져 온다. 또한 책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명심해야 할 진리가 담겨 있음을 학생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는 용 교수는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자기 계발을 위해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교양서적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직업교육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당국에 대한 충고 역시 잊지 않았다.

퇴임 후에는 학생들이 영문법을 쉽게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형문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는 용철원 교수.

반평생을 학생들에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도 학문과 학생들을 위해 달리고 싶다는 그의 열정 어린 눈빛에서 진정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농업에 대한 쉽 없는 열정 후배들이 이어가주길"



김경제 교수
(생자대 식물자원학)

"학생들을 더욱 잘 가르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나 자신에게 체찍질을 하고 싶다네." 대학 교수의 퇴임소감치고는 무척 인색하다. 남보다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기로 소문난 김경제(식물자원학) 교수.

지난 60년 농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본교와 인연을 맺어온 김 교수는 농업연구사를 거쳐 68년 교단에 서게됐다.

"어렸을 때부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농업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지." 교직생활 초 대부분의 배추가 일본 품종이었던 현실이 안타까워 국산배추를 육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 그는 논문이

140여 편에 이를 정도로 농업 연구에 열정을 바쳤다.

35년 동안 농업을 연구해 온 김 교수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 농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농사를 지으면 공기와 물을 보호할 수 있고 경관도 좋아지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농부를 '내추럴 매니저'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업 연구에 삶을 집중한 김 교수는 동국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나머지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 열정은 70년, 71년에 농촌진흥청 연구직 시험에 학생들을 10명 이상 합격시켰던 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농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가장 즐거웠다고 말하는 김 교수.

"어떤 활동이든지 동국대 교수라는 직함을 써주지 않으면 거절했네." 학교에 대한 그의 사랑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도리वाद과 같다.

"연구를 마음껏 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죠. 퇴임 후에는 토양 미생물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뜨거운 용암 같은 그의 열정이 차갑게 식어 암석으로 굳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선진화된 농업학 필요 느껴 반평생 학문 연구에 정진



조병찬 교수
(생자대 생명자원유통산업학)

소설 '삼류수'에서 영신과 동혁은 지식인으로서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선다.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농민의 '깨어있는' 의식이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록 소설 속 영신과 동혁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앞장선 교수가 있다. 우리나라 농업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반평생 한길을 걸어온 조병찬(생명자원유통산업학) 교수.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관련 서적 대부분이 일본 농업 이론에 기초한 책이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 조 교수는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당시 우리나라 농업관련 학문이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고 우리 농업 실정에 맞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30여년 동안 농업 이론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우리 농업의 중요성까지 일깨워준 조 교수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농업도 이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만들고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값싼 중국산 농산물 유입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실정에서는 이와 같이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평생 '농업의 발전'이라는 한 길만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조 교수는 이제 조금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도 모른채 농업 연구에만 몰두했으니 이제 나를 찾는 공부를 해야지." 평소에도 삼국사기와 같은 고전 읽기를 좋아한다는 그는 고전 속 이야기에 비해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봄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느끼려 하는 것이다.

퇴임 후에도 언제나 자신이 '동국인'임을 잊지 않겠다는 조병찬 교수. 그는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동국대학교와 구성원에게 정말 감사한다는 말을 남긴다. 조 교수의 하얗게 센 백발이 많은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지만 그의 모교사랑은 계절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록수의 푸르름과 같았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나눔' 정신 몸소 실천 바람직한 교육자 양성 노력해



한명희 교수
(사범대 교육학)

"항상 새로운 것을 접하고 탐구할 수 있다는 일은 기쁨이죠." 실재없이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기관차처럼 연구에 대한 열정을 내뿜으며 달리는 교수가 있다.

지난 75년 본교와 인연을 맺어 교육학의 목표인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온 한명희(교육학) 교수가 바로 그렇다.

한 교수는 처음부터 교수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 교원 등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다니며 사회사업가의 꿈을 키웠지만 가난했던 시절 경제적인 이유로 그 꿈을 가슴 한편에 묻어 두어야 했다.

"이제부터는 능력이 되는 한 주변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한 교수는 지난 회갑 때 성대한 잔치대신 그 비용을 모아 지체장애인 7명에게 의족을 선물했다. 비록 그의 명함에는 '교수'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주변사람들에게는 사회사업가로 이미 인정을 받은 것 같은 한 교수.

이러한 그는 퇴임을 맞으면서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아마도 그에게는 '나눔'이라는 인생철학과 '열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교육학 연구 외에도 10년간 운영한 여성학 강좌, 6년여의 연구소 생활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만큼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

"교수생활을 하면서 두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뇌졸중과 앞으로 병원생활을 했다는 한 교수. 하지만 그는 단 한번의 휴직 없이 교편을 잡았다.

그의 이러한 열정이 있기에 한 교수의 퇴임은 더욱 아깝다.

30여년 이상 학문 연구로 바쁘게 살아온 한 교수는 퇴임을 준비하는 지금 역시 여유롭지 않은 않다.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활동들을 현재 CD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학의 역사에 작은 흔적을 남겼으면 한다는 한명희 교수. 그에게 '열정'과 '나눔'의 빛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뷰를 하지 못한 퇴임교수들의 간단한 약력을 소개합니다.



서성원 교수
(불교대 인도철학)

세부전공 인도불교철학
최초임용일 1988.03.01
학위 본교 인도철학사
본교 불교석사
프랑스 Paris 4대 종교박사



최용재 교수
(문과대 영어영문학)

세부전공 응용영어학
최초임용일 1981.03.02
학위 조선대 문학석사
조선대 영문석사
미국 Indiana대 영문석사
조선대 영문박사
미국 Georgetown대 영문박사



이영준 교수
(법과대 법학)

세부전공 민법(가족법)
최초임용일 1999.09.11
학위 서울대 법학사
서울대 법석사과정
독일 Frankfurt대 법박사



조희영 교수
(경영대 경영학)

세부전공 국제경영론,
금융제도론
최초임용일 1976.03.24
학위 본교 경영학사
본교 경영석사
독일 Bonn대 경제박사

매체비평

도서 편

하얀 가면의 제국

“서구중심주의 넘어 정신적 자유에 이르는 길잡이”



우리 안에 내재된 서구 중심 역사인식을 다룬 박노자의 '하얀 가면의 제국'.

박노자의 글은 재미있다. 동서양의 역사, 정치, 사회를 들여다보고 비판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당하다고 재단해온 가치 개념이 그의 글 속에선 부분적이거나 송두리째 부정되고 뒤섞여버린다. 그래서 독자들은 더러 멍하게 된다. 보수와 기성의 체계 속에서 길들여져 온 자신의 사유 체계가 박노자 식 담론에 의해 허물어지는 고통이다.

이건 일종의 바이올리스 감염이다. 블라디미르 미카일로비치 티코노프, 박노자가 2001년 귀화하기 전 러시아 이름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동방학부 조선학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금은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학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경희대 러시아어과 전임강사를 거쳐 귀화까지 이르는 이력을 새겨오는 동안,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한기(寒氣)'를 느끼게 해왔다. 일련의 저

술을 통해서였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나를 배반한 역사' 등이 우리 귀에 익은 박노자의 저서다.

이번엔 '하얀 가면의 제국'이다. 진보성향의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연재해온 '박노자의 북유럽 탐험'이라는 연재물에서 추리고 덧붙여 단행본으로 묶어낸 것이다. 한겨레신문사에서 2003년 12월에 초판 1쇄를 출간했다.

'하얀 가면의 제국'은 결국 오리엔탈리즘과 서구 중심의 역사인식은 하얀 가면일 뿐이라는 경고를 담은 책이다. 시사주간지의 연재물인 만큼, 당연히 칼럼의 성격을 띤 편편을 묶어 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전염시키려는 바이러스의 힘은 강력하다. 우리 안에 내재된 오리엔탈리즘, 또는 긍정적 옥시덴탈리즘

(Occidentalism)같은 서구중심의 역사를 넘어서서 정신면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기를 권고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얀 가면의 제국'이 지닌 매력이다. 잔뜩 인용과 각주를 동원해 학자연하는 문명비평서나 역사연구서가 아닌 것이 오히려 장점이다. 칼럼 형식의 글이기에 논쟁의 핵을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과감하게 단정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시원스럽다.

'하얀 가면'은 서구에 대한 맹증을 상징한다. 하향지도 않은 이들이 스스로 하얗게 되고 싶어 쓰는 가면을 이룬다. 프랑스에 대해 알게 알레리 독립운동을 이끈 프란스 파농이 설파한 개념이다. 하얀 가면을 쓰고 있고, 쓰고자 하는 부류들이 위험한 것은 불합리하고 폭력적이며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잔혹한 논리에 길들여진다는 점이다. 서구의 역사는 약육강식의 사

회진화론에 의거한 강탈과 잔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박노자는 동서고금의 역사 이야기를 들추어내면서 우리 안의 서구 중심주의에 대해 진단하고, 넉넉지 서구 중심의 역사를 보는 시각, 서구에 일반적으로 매혹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버리는 비천함에 서 벗어나라고 권한다. 물론 '하얀 가면의 제국'이 만병통치의 처방전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인의 눈으로 우리 사회와 서구를 판단하는 데 크게 조력한다. 특히 미래의 인텔리겐치아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정직한 통찰력을 기르는 중인 대학생들이, 한국인이 유지 존속해야 할 정신의 유전형질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길잡이가 되리라 본다.

정희성
시인,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강사

어둠을 날아 밝은 졸업식으로

누구나 운동장에서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한 졸업식 예행연습과,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롤링페이퍼'를 쓰며 눈물 흘리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한번쯤은 겪었을 만한 졸업식 풍경이기 때문이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

졸업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학교 과정을 마친 것을 기념하는 자리만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흔히 'commencement'라고 하는데 이는 '시작', '개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졸업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또다른 시작을 다짐한다는 의미는 같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동장과 강당을 가득 메운 친지·친구들이 웃고 떠들며 한껏 무르익은 분위기는 가슴속 따뜻한 추억으로 남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로만 들릴지 모른다. 실제로 요즘 대학가 졸업식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식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진기자 오지석(33) 씨의 "취업하지 못한 학생은 부모님조차 잘 오시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말

은 졸업식 분위기가 얼마나 가라앉아 있는가를 잘 알려준다.

본래 의미 퇴색

이는 본교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학기 졸업한 김경현(법) 동문은 "수상자들만 졸업식 행사에 참여하고 졸업생들 대부분이 행사 날 좁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고 말한다.

이렇듯 졸업식 모습이 변하고 그 의미조차 퇴색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우리사회의 청년실업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졸업생들에게 졸업은 다시 '새출발'한다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치열한 경쟁 사회로 떠밀려 들어간다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때문에 많은 졸업생들에게 졸업식은 졸업기보다 부담감을 먼저 느끼는 행사가 되곤 한다.

또다른 이유는 졸업식이 '모든 졸업생들의 축제'가 아니라 일부 '상' 타는 졸업생들의 축제'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졸업식을 살펴보면 연단에는 총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근엄하게 앉아있고, 좌석에 앉아있는 학생은 단지 수상자들

뿐인 현실이다. 학생들은 박수만 치기 위해 졸업식장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졸업식 행사를 들 수 있다. 변하지 않는 행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뻘' 것으로 인식 된다.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졸업사, 치사, 축사 등은 더 이상 학생들을 졸업식장으로 이끌 수 없다.

졸업생 참여 유도해야

그러나 외국의 대학 졸업식 풍경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미국 코넬 대학 졸업식은 가족들이 큰 미식축구장에 가득히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축사를 경청하며 모두에게 축하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외국의 많은 대학에서 총장이 학생 개인에게 모두 졸업장을 수여한다는 것도 분방을만 하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졸업식을 준비하는 곳이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이번 졸업식에서 총장이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직접 졸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용인캠퍼스의 졸업생을 한곳에 수용하기 위해 대운동장에서 졸업식을 진행한다.

한편 전체 졸업행사를 폐지하고 각 단과대별 졸업식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 단과대별 졸업식을 진행하는 영남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규모를 줄이니 전보다 학생들의 참여율과 호응도가 높아졌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 대학의 졸업문화가 변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모습에 학생 참여까지 저조해진 유명무실한 졸업식을 고집하기보다 졸업생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졸업문화 조성이 시급할 때이다.

본교 역시 일부 학과에서는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졸업식 현장 비교 인터뷰

1970년대 '화기애애' 2000년대 '썰렁'



임기환(전자공학) 교수.

30여년 전과 지금의 본교 졸업식 풍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 변화된 모습을 지난 72년 본교를 졸업한 임기환(전자공학) 교수와 지난 2002년 졸업한 김승식(선) 동문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았다.

- 1. 졸업 당시 기본
- 2. 졸업식 풍경
- 3. 최근 졸업식에서 개선돼야 할 점



김승식(선 02졸) 동문.

1.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좋았다. 그 당시는 대졸자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고 스스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즐거움과 희망을 가졌다. 지금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취업문제가 당시에는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2. 전체적인 졸업생 수가 적어 중앙당에 졸업사 전원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가족, 친구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학교 건물이 지금보다 적어 학내 넓은 터들이 많았는데 졸업식 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가득 메웠다. 또한 우리 과의 경우 졸업식 날 교수님과 함께 사진도 많이 찍었으며 사은 회에도 많은 학생과 교수님들이 참여했었다.

3. 졸업생은 열 배 가까이 늘었지만 졸업식 진행 장소는 여전히 중앙당이다. 이로 인해 졸업식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은 일부뿐인 것으로 안다. 모든 졸업생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애정을 갖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단지 졸업장과 졸업앨범을 받으러 가는 것에 불과했다. 사실 처음에는 졸업식에 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부모님과 사진이나 찍을 생각으로 참석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취업을 못해서이기도 했지만 졸업식이란 것이 현재 대학생들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였다. 대부분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었다. 신입생 때 참가한 96년도 졸업식과 비교해보면 너무 졸업식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선후배가 어울려 서로 축하해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든 것 같다. 졸업식이 가족끼리 사진 찍는 '가족행사'에 불과해졌다고 본다.

3. 졸업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학교 후기 졸업식의 경우 학과 졸업행사도 진행하지 않는 형편이다. 지도교수를 비롯한 학과 교수들이 졸업생에게 졸업장 하나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메아리

두 번 죽는 '이태백'

▲투너가 필요 없는 퀴즈프로.

요즈음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분명 문제를 맞추는 퀴즈프로이다. 그러나 보통의 퀴즈프로그램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열을 올린다면 이는 코미디언이 어떤 오답을 말하는지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 그 중에서도 시청자들의 배꼽을 잡게 하는 말이 있으니.

"그건 저를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요즘 최대 유행어로 떠오르고 있는 바

로 이 말이다.

▲"올해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이 줄어들도록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설날 아침 국민들에게 띄운 이메일 내용이다.

이제 청년 실업은 '이태백'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일부 계층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올해 최우선 과제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산업자원부는 제조업, 유통 등 관련 서

비스업에서 총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일정기간 임금의 일부 보조, 신규채용을 늘릴 경우 세금 공제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재정경제부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작년보다 30만개 늘리겠다고 밝히며 실업극복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뚜렷한 계획과 대책 없이 현실 불가능

한 수치를 나열하고 대부분 공공근로사업 등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파트타임이 많아 '한 건 주의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높다.

대학당국 역시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취업특강, 1~2개의 취업관련 교과목 개설을 하고 있을 뿐 기업체와 학생의 연결,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커리큘럼 개발에는 소극적이

기 때문이다.

▲실업문제는 어느 한 부분이 나아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답'만을 제시한다면 이야 말로 취업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될 것이다.

조슬기 대학부장
chof55@dongguk.edu